

VI. 도량형제도

1. 옛 도량형제도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IV. 도량형제도

1. 옛 도량형 제도

1) 상고의 도량형제도

(1) 도량형의 시초

인류는 의·식·주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취하여 이용해 왔는데, 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에 편리한 크기와 필요에 알맞은 물량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물질의 크기와 양을 항상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했다. 이러한 요구에 알맞게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크기는 길이를 기준으로, 물량은 기준량의 倍數값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은, 장년 남자 신체의 특정부분이었다. 신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을 삼는 부분이나 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각 지역의 인종에 따라 도량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장년 남자의 오른쪽 팔꿈치에서 長指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하여 1큐빗(약 50cm)이라 했는데, 오늘날 길이의 표준치가 되는 1미터는 이 基準에 연유한 것이다. 또 중국 상고 때 기록에 의하면, 장년 남자의 10指幅을 길이의 기준으로 취하여 指尺 1尺이라 하고, 步幅의 2배를 1步라고 했다. 그리고 장년 남자의 양손을 모아 담은 穀物量을 물량의 기준으로 삼아 1升(또는 1掬)이라 했다고 한다.¹⁾ 이와 같이 옛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물량을 측정하고 판단하였던 방법이, 훗날 度(길이)·量(부

1) 《孔子家語》王言篇·小爾雅.
《史記》夏本紀.

피)·衡(무게)이란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용적에서 기준을 취한 것으로 보아 상고 때의 計量法은 농경사회 사람들이 곡물을 거래하는 데 공정성을 얻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체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인체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지능이 발달하면서 곡물거래의 공정성이 요구되었고, 器物 제작 기술도 개발됨으로써 지배자는 단일 標準尺과 標準量器 등을 만들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때 제정된 표준척 길이와 표준량의 부피는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신체 기준 그것과 비슷하거나 같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기술은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해 널리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전수·발전하였다. 인접 후진국들은 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기준이 되었던 도량형제도도 함께 수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도량형제도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제도나 기술의 근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강력한 지배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통일된 도량형제도의 시행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舜典》의 “乃同律度量衡”이란 것이다. 舜임금은 당시까지 전래하던 길이 표준척 「指尺」을 취하지 않고, 舜帝樂의 基準音律管長을 舜帝尺으로 취하여 전래의 표준량인 1승의 용적을 25立方寸이 되게 하였다.²⁾ 그러나 민간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척도는 指尺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여러 문헌자료와 유물·유적 등을 통하여 옛 도량형의 표준척과 표준량이 장년 남자의 10指幅(또는 한뼘)과 양손에 담긴 곡물량이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箕田尺도 표준척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통일된 도량형을 시행한 것은 상당히 상고 때부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高麗史》地理志의 ‘箕子の 井田制’란 기록에 관하여 최초로 깊이 연구한

2) 朴興秀, 〈中國上古 때 度量衡制度에 關하여〉(《大東文化研究》12, 1978).

결과를 圖面까지 작성하여 밝힌 箕田遺制說이 있다.³⁾ 이에 의하면, 含毬門과 正陽門 사이에 있는 田土를 「井」자형으로 9등분 한 것이 아니라 「田」자형으로 4등분하여 中橫을 각각 4개씩 배열함으로써 16개의 田을 하나의 기본형이 되도록 구획하였다고 한다. 또한 만일 4등분된 하나를 1區라고 부른다면, 그 기본형은 4진법 수에 맞추어 64구로 割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井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箕田의 遺趾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평양역을 건설하면서 파괴하였으나, 훗날 주변에 남아 있던 기전들을 정밀 측정하여 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⁴⁾ 즉 “箕田에서의 도로는 中橫으로 똑같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번갈아 관통하고 있는데, 그 넓은 길의 폭은 약 46척 1촌(曲尺, 13.97m), 좁은 길의 폭은 약 17척 3촌(5.24m)이 된다. 지난해 (朝鮮)總督府 技師가 실측한 데 따르면, 각 도로간의 거리는(가령 町이라 하면) 동서 9町의 평균치가 597.5呎(182.118m), 남북 7町의 평균치가 595.5呎(181.505m)으로 되어 거의 같았음을 알았다. 이 넓이는 도로까지 포함시킨 것이므로 東魏尺[高句麗尺] 500척으로 분할하여 도성을 세우려 하다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36.36cm 길이의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text{町}=(182.118\text{m})\times(181.505\text{m})=(181.812\text{m})^2=[(36.3626\text{cm})]\times(500)]^2$$

지금까지 밝혀진 고구려척인 기전척의 길이는 35.50~35.85cm에 불과하고 이러한 長尺은 알려진 바 없으며 동위척의 정확한 길이도 34.766cm로 밝혀지고 있어, 이 설은 하나의 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다.

$$\begin{aligned} 1\text{町(田)} &= (181.8129\text{m})^2 \times \{[(35.510\text{cm}) \times (6.4)] \times 80\}^2 \\ &= [(227.264\text{cm}) \times (80)]^2 = 3,3055\text{m}^2 = 3.3\text{ha} \end{aligned}$$

오히려 위와 같이 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고려 문종 때의 米斛量器의 1변의 길이 35.51cm와 多寶塔의 建造尺인 35.52cm의 고구려척과 같은 유형의

3) 韓百謙, 《久庵遺稿》上, 箕田遺制說.

4) 藤田元春, 〈箕子の井田〉(《尺度綜考》, 刀江書院, 1929).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기전의 1田은 殷代の 도량형제도에서의 4진법의 길이 단위인 64촌, 즉 6척 4촌인 227.26cm를 거리단위(이것을 1步 또는 1竿長이라 한다면)로 한 4방 80竿이 되게 할지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방 1간인 넓이 40.96평방척을 1竿積, 사방 4간이 만드는 넓이를 1畝(18畝라고 가칭한다)라 한다면, 다시 한 가구에 분급되었을 1區의 넓이는 100畝(畝)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은 1600평방간(8263.8m^2)이 되고, 1田의 넓이는 6400평방간($3,3055\text{m}^2$)이 되어, 모든 단위수들이 殷代의 도량형단위제도와 같이 4진법과 10진법의 복합단위수가 된다. 또 1전이 차지하였던 도로의 넓이도 10분의 1이 되므로 1구의 실질적인 경작농토의 넓이는 1400평방간(7437.4m^2)이 되며, 기전의 기본형의 넓이는 그것의 64배, 기전의 총넓이는 640배에 가까워진다. 이것과 비슷한 量田法이 근년에 이르기까지 山東省 益都縣에서 실시되었는데, 거기서의 1竿長도 동일한 길이이었음이 확인되었다.⁵⁾

이러한 이유에서 기전은 韓百謙의 해석대로 殷田 제도를 축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전척이 삼국시대의 官尺이었던 고구려적으로 일컬어져 온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실시하였던 시기가 기전의 개설 때보다 내려올 수 없음도 명백하다. 《孟子》에 보이는 “殷人七十而助”에서 ‘七十’은 1구가 사방 84간인 7056평방간의 100분의 1인 1무 넓이를 가리킨다. 이 때의 실전은 사방 80간인 6400평방간이 되며, 나머지 4간 중 1간은 소도로인 소위 1畝道路幅에, 3간은 3畝路幅에 충당되었을 때의 넓이로서 도로는 10분의 1이 되게 된다. 이 4구인 1전을 정자형으로 9등분 한다면 그 넓이가 정확히 《禮記》王制篇에서의 當今の 100畝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의 관척이었던 이른바 「高句麗尺」은 기전척이 原尺이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기본척이 되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전법은 춘추전국시대의 도량형 개혁 때 생겨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5) 朴興秀, 〈箕田考〉(《道原柳承國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83).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통일신라 때 실시되었던 結負束把法은 고려때는 물론 조선 세종 때까지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양전법이었다. 이 때 밝혀진 양전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量田尺=壯農夫 10指幅(指尺)=19.42cm
 1把길이=64指=指尺 6尺 4寸
 1把積(쥬)=四方 指尺 6尺 4寸=指尺 40.96平方尺
 1束(단)=10把=指尺 409.6平方尺
 1負(짐)=10束=四方 指尺 64尺
 1結(먹)=100負=四方 指尺 640尺
 =四方 下田尺 35.55步
 =指尺 40,960平方尺
 =1,5447m²=世宗 때 中朝畝 59畝 112步≈1.5ha

결부속파법은 正方形田으로 양전하는 것으로서 4진법과 10진법의 複合數형의 단위제도였으나, 그것은 기전의 割地法에서와는 별개의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井田法과 阡陌田法에서의 양전법으로 밝혀진 《예기》 왕제편의 步畝法과 거의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왕제편에서는 周尺을 量地尺으로 삼아 6척 4촌의 길이를 1步, 사방 1步積도 1보, 100보를 1무, 100무를 1夫라 하였는데, 결부속파법에서는 步·畝·夫를 把·負·結이라 하였다. 파·속·부·결은 「쥬」·「단」·「짐」·「먹」등으로 일컬으며, 특히 「먹」이란 단위명은 한 가구의 양식을 얻기 위해 給田된 넓이란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정전법은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 초엽에 齊가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殷田의 1田인 4區를 井자형으로 9등분한 데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商鞅에 의하여 秦에 도입되어서는 천백전법으로 되었으나, 量地尺인 周尺이 신장됨으로써 이 제도들도 진시황 26년부터 1보가 주척 6척으로 개혁되어 없어졌다. 우리나라가 결부속파법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면 이

6) 朴興秀, 〈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關하여〉(《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11, 1972).

시기에 수용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도량형제도의 특성에 따라 양전척은 주척으로, 양전의 단위명도 보·무·부로 불려져야 한다. 물론 통일신라 때 학자들 사이에선 결·부·파를 중국식으로 경·무·보로 부르기도 했으나, 정전법에서의 畝·夫와 漢 이후의 畝·頃制도 면적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호칭은 본래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제도를 모방한 학자들의 그릇된 호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양전법은 본시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중국에서는 周公 때에 상고시대의 指尺을 周의 官尺(길이 19.496cm)으로 제정하였다. 후인들은 이 관척을 주척이라 불렀으므로 장년 남자의 10指幅이란 호칭은 주척이란 호칭보다 앞선 명칭이라는 점, 둘째 중국 상고시대에 길이의 표준 10지폭과 양의 기준량으로서 장년남자가 두 손을 모아 담을 수 있는 곡물량인 1升(또는 1掬)은 당시 도량형의 기준이었는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그것과 같았던 점, 셋째 고구려와 신라의 관척이었던 고구려척은 기전척의 傳授尺임이 분명한데, 오랜 옛날부터 標準量器로 전해 온 米斛量器가 기전척의 1입방척이었던 것으로 보아, 기전이 개설되었을 시기에 기전척을 기준으로 하여 도량형제도를 통일하여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전법도 기전에서와 같이 기전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양전법에서는 실제로 상고시대의 길이 기준이었던 10지폭을 양지척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전이 개설될 당시에 10지폭을 기준한 도량형제도와 결부속파법이 실시되고 있어 그것들을 改量田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던 결과로 생각된다는 점, 넷째 결부속파법에서 사용된 「먹」·「짐」·「단」·「쭈」이란 명칭은 곡물의 수확량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 즉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한 가구의 양식이 대략 장년 남자의 100짐 정도에 해당되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도량형제도가 정비되고 전토의 넓이도 이에 따라 10지폭을 기준으로 그 단위를 제정할 때 옛 수확량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쭈·단·짐·먹으로 면적의 단위명칭을 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에서의 양전 단위에는 보이지 않는 束 단위까지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등이다.

(4) 상고의 도량형

가. 척 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고 때 標準尺 길이는 장년 남자의 10지폭이었는데, 조선 세종 때까지 전해진 下田尺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길이는 19.42cm가 된다. 이 길이는 주공의 주척 19.496cm보다는 조금 짧다. 또 기전이 개설된 당시부터 표준 관척이 되었을 기전척인 고구려척은 35.510cm이다. 이 기준척을 量器尺으로 하여 만들어졌을 고려 문종 때의 米斛量器를 세종 때의 표준량으로 환산한다면 35.498cm의 길이가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실측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길이를 평균했을 때 기전척은 35.504cm가 되므로 원래의 기전척 길이를 35.510cm로 보고자 한다. 삼국은 이 척도를 똑같이 관척으로 사용하였는데, 여러 유지와 유물의 실측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통일신라 때 건조된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실측에서는 35.52cm 길이로 밝혀졌으며, 백제의 목수들에 의하여 건조된 일본 四天王寺의 실측에선 35.576cm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⁷⁾

이 밖에 서울 방이동의 백제 석실고분의 석실은 길이 23.25cm의 王莽尺의 신장척으로 볼 수 있는 척도로써 만들어졌고, 또 武寧王陵은 20.81cm 길이의 주척으로 보아야 할 척도로써 만들어졌음이 밝혀져, 고구려척 이외의 척도들도 중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人身尺으로 보아야 할 한 발[尋], 한 길, 한 걸음폭 등도 길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상고 때의 인신척이 근세까지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가) 표준량기의 용적과 양기척

고려 태조는 ‘宜用舊法’이라 밝히면서 도량형제도는 물론 조세법까지도 통일신라 때의 제도를 계승하였는데,⁸⁾ 조선의 태조도 고려의 도량형제도와 조

7) 藤田元春, 〈四天王寺と法隆寺の地割の差〉(앞의 책), 429쪽.

8) 《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浚上書.

세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따라서 세종 때의 米斛 표준량은 통일신라의 표준량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량이 정확히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箕田尺을 기준으로 하여 1입방척이 되게 만들어졌던 표준양기가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고려 문종 때의 미곡양기였다. 《고려사》에서는 米斛器를 1입방척이 아닌 1척 2촌의 입방체 용적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기전척 길이를 唐大尺의 길이로 量器尺을 고쳐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세종 때 營造尺 길이가 31.22cm로 밝혀졌는데, 이에 근거하여 문종 때의 미곡양기의 용적을 계산하면 영조척 1470입방촌, 한 변의 길이가 영조척 1尺 1寸 3分 7釐로 계산되므로 기전척 길이 35.497cm로서 한 되의 용적이 596.4cm³가 된다.

지금 이 표준량기의 양기척 길이가 제조 당시에 기전척 길이와 같았다고 가정한다면, 한 변의 길이는 영조척 1척 1촌 3분 7리 4모가 되어 4모의 차이가 있게 된다. 4모까지를 포함시킨다면 미곡기 용적은 영조척 1471.43입방촌이 되므로 한 되의 용적은 19.619입방촌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4모의 길이까지가 실측되었다 하더라도 세종 때에는 1승을 영조척 19.6입방촌으로 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표준량기로서의 미곡량기는 한 변의 길이를 箕田尺 1척인 35.510cm가 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미곡량기는 기전척을 기준척으로 하여 도량형제도를

〈표 1〉

韓國의 上古尺度

尺 種	1尺 길이(cm)				實 測 物
	상 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 려	
箕田尺 (高句麗尺)	35.510	35.510	35.510	35.510	平壤 箕田
	35.51	35.51	35.51	35.51	標準米斛量器
			35.52	35.52	佛國寺 多寶塔
10指尺 (量田尺)	19.42	19.42	19.42	19.42	高麗 下田尺
周 尺		20.81	20.8~20.54	19.42	統一新羅石造物 및 武寧王陵
百濟尺		23.25			芳莢洞 石室古墳
唐大尺				29.592	米斛量器

통일할 때 만들어져 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신라 때 한 되의 부피는 597㎤였으며, 75升이었던 표준량의 용적은 4,4776.7㎤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도량형제도의 통일과 표준량

고려 문종 때까지 전수된 표준량기인 미곡량의 양기척이 기전척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箕田이 개설될 그 당시에는 기전척을 標準尺으로 한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곡물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섬」[石]을 널리 사용하였다. 그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양에 있어서는 도량형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변화되었다.

농민들 사이에서 불리어온 「섬」이란 곡물을 담기 위해 뿔집을 엮어서 만든 양기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용기 속에 채운 곡물의 양으로도 일컬어온 명칭이다. 이와 같이 「섬」이란 이름은 선사시대에 곡물을 다루기 위해 섬을 만들어 곡물을 채워 운반 저장한 데서 시작되었던 명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에 한 섬이란 물량은 장년 남자가 다루기에 편리한 무게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양은 점차 정확성을 띠면서 일정한 곡물의 기준량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위량이 「石」이란 명칭으로 불린 것은 한자를 통용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단위명이 도입된 때로부터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일적인 도량형제도가 실시된 것은 장년 남자의 양손에 담긴 곡물량을 한 되, 섬에 담긴 곡물량을 한 섬으로 하고, 장년 남자의 1指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길이의 표준을 10指로 했을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제도로 제정된 것이 결부속파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길이 기준=손가락 굵기

길이 표준=10指(19.4cm)

양전용 길이=64指

물량기준=한 되(약 300㎤)

한 말=열 되

한 섬=열다섯 말(약 45리터)

여기에서 한 섬은 10진법 수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섬」이란 단위는 10진법에 의한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실시

하기 이전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 양을 10진법에 맞추면서 한 섬이 15말로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상고시대에 1승은 313㎤, 1두=10승, 1석=10두로 10진법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石量이 다른 점으로 보아 우리의 상고시대 도량형제도는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고시대에는 또 하나의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준척=箕田尺(35.510cm)

=箕田尺 6尺 4寸

1升(되)=298.5㎤

1斗(말)=10升

1石(섬)=15斗(4,4776.7㎤)=標準量器 容積

상고시대 도량형의 특징은 1石을 기전척의 1입방척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고 1승의 양을 298.5㎤로 정확하게 통일시킨 점이며, 이 때 만들어진 표준양기는 잘 보존 전수되어 기전척인 고구려척을 통일신라 말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표준량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

다. 무게 단위로서의 칭량

《經國大典》度量衡記에서는 衡量 단위에 釐·分·錢·兩·斤이란 단위 이외에도 稱이란 단위량이 세종 때까지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⁹⁾ 그런데 중국의 옛 도량형제도를 밝히고 있는 《漢書》律曆志에서의 형량 단위에는 銖·兩·斤·鈞·石의 다섯 가지 단위의 이름이 있을 뿐 稱이란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¹⁰⁾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무게 단위들은 주나라 말 도량형을 개혁한 이후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小爾雅에서는 “稱이란 단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15斤에 해당하는 秤이란 것과 상통한다”고 했을 뿐이다.

한편 《史記》의 夏本紀에 “聲爲律 身爲度 稱而出”이란 것이 보여, 人身尺과 더불어 상고 중국에서도 칭이란 무게 단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9) 《經國大典》권 6, 工典 度量衡.

10) 《漢書》권 21 上, 律曆志.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세종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단위량 「칭」은 大稱・中稱・小稱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고, 대칭은 100斤, 중칭은 7근 혹은 30근, 소칭은 1근 혹은 3근이라 하여 그 실상을 알아내기 힘들며, 중국에서의 15근과도 차이가 있다. 이 단위량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지만,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무게 단위를 가진 도량형제도가 상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고 이후 문무왕 21년(681)의 도량형 개혁 때까지 도량형제도를 개혁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보면 중국의 도량형 단위인 步・丈・里・分・兩・斤・升(斗)・斛 및 畝・頃 등이 흔히 쓰이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조공과 상거래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그러한 단위량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느 시대의 어떠한 제도를 반영하는 단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왕의 遺詔에는 불편하게 여겨왔던 도량형제도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¹¹⁾ 통일신라와 고려 때의 제도로 보아서 이 때 개혁된 도량형제도는 里步法과 儀禮의 기준적이 되었던 周尺 및 唐大尺이 도입되었을 것이며, 기준량이 되어 온 「한 되」는 본래의 양을 두 배로 하여 唐의 1升量인 655ml와 비슷하게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한 섬의 양도 관습에 따라서 새로운 표준량으로 삼아 15두로 증량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혁으로 말미암아 일반 농민들 사이에는 섬(石)량의 혼돈으로 인한 큰 혼란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개혁으로 섬을 크게 만들어야 하였으므로 「섬」에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있게 되고,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큰 섬량을 1碩으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본래의 되・말・섬들은 작은 되, 작은 말, 작은 섬으로 새로운 양기

11) 《三國史記》권 7, 新羅本記 7, 문무왕 21년.

들은 큰 되, 큰 말, 큰 섬으로 구분되었을 것이나, 관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租穀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점차 新量制度로 단일화되어 「碩」도 石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옛 한 섬의 양은 옛부터 개혁 이후까지 줄곧 표준양기가 되어야 했으므로 중국의 10두량의 단위인 斛을 도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때 升 이하의 적은 단위량도 중국제도를 본떠서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勺	=0.1合	
1合(홉)	=0.1升	=60ml
1升(되)	=10合	=597ml
1斗(말)	=10升	=5970ml
1斛(작은 섬)	=7斗 5升	=4,477ml
1碩(큰 섬)	=15斗	=8,953ml

이러한 量制가 개혁될 때, 물론 衡量에도 개혁이 있었을 것이다. 이 때까지 통일된 도량형제도로써의 단위량에는 稱量이 있었을 뿐 斤과 같은 양들은 중국의 형량들을 도입하여 중국식으로 제정되어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당시 당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1斤重은 668그램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그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衡量單位도 1斤=16兩=668그램, 1兩=24銖, 1銖=10分(文)이란 제도와 10進法 제도인 1貫=100兩, 1兩=10錢(綮), 1錢=10分, 1分=10釐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세종 때까지 전해진 단위명은 1전=10분, 1냥=10전, 1근=16냥이었다. 만일 문무왕 때 제정된 형량단위가 세종 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錢=10分=4그램
1兩=10錢=40.1그램
1斤=16兩=642그램

따라서 형량의 표준량도 당의 그것과 같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문무왕 때 제정된 1근을 642그램으로 가정한다면 당시에 있어서 본래의 형량 1칭은 약 475그램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고려의 도량형제도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고려의 성종은 통일신라 때부터 토질이 비옥하거나 척박한 데 대한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1負에서 수확된 곡물 3승씩의 조세를 내게 하던 조세법을 고쳐서, 1결의 수확고가 7~10석까지의 田은 하등전, 11~14석까지의 전은 중등전, 15~18석까지 전은 상등전으로 나누고, 그 수확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로서 하등전에서는 2석, 중등전에서는 3석, 상등전에서는 4석씩을 거두어 들이는 3등급의 차등조세법을 실시하였다.¹²⁾ 이와 같이 토질에 따른 차등조세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모순된 조세법을 바로잡고 增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정에서 차등조세율에 따른 각종 세액 계산이 크게 복잡하게 되어, 조세량의 산정이 부정확할 염려가 있었다. 이에 문종은 전토의 면적 차이에도 차등세율을 두어 옛 조세법과 같이 1부에 3승씩의 조세를 내게 하는 이른바 「同科收租法」 시행의 사전 작업으로서 量制를 먼저 개혁하였다. 즉 옛부터 전해 온 표준량기 1斛器를 米斛 1斛量器로 한 채 이것과는 용적을 달리한 大·小豆斛과 末醬斛, 稗租斛의 4종류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대·소두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는 거기 담긴 곡물의 값이 糙米 1곡 값과 꼭 같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量體制는 중국 옛 기록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른바 「齊價量體制」라 할 수 있는 제도였다.¹³⁾

여기에 비해 대·소두곡의 용적은 다른 量器들 곡물가의 절반값이 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소두곡의 용적만을 절반값이 되게 만든 것은 동과수조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1부에서 3승의 조를 거두어들일 때 水田租는 미곡양기로 糙米 3되를, 旱田租는 대·소두곡 양기로 대·소두 3되를 바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내용은 《世宗實錄》에도

12)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13) 朴興秀, 〈新羅 및 高麗 때 量制度和 量尺에 관하여〉(《科學技術研究》 5, 1977).

〈표 2〉

한국 고대 量制度 일람표

양 기 종 류	단 위 명	상고시대		문무왕 21년 이전		문무왕 21년~ 고려 문종 7년		문종 7년~ 조선 세종 28년		표준양기 長·廣·高
		용적 (升)	용적 (ml)	용적 (升)	용적 (ml)	용적 (升)	용적 (ml)	용적 (升)	용적 (ml)	
米 斛 量	合	—	—	—	—	0.10	60	0.10	60	상고 때 箕田 尺 1尺 문종 7 년 후 唐大尺 1尺 2寸=35.51 cm
	升	1.00	299	1.00	299	1.00	597	1.00	597	
	斗	10.00	2985	10.00	2985	10.00	5970	10.00	5970	
	斛 (原器)		4,4776.7	150.00	4,4776.7	75.00	4,4776.7	75.00	4,4776.7	
	石	150.00	4,4777	150.00	4,4777	150.00	8,9553	150.00	8,9553	
大·小豆 斛量	合	—	—	—	—	—	—	0.10	45	唐大尺 1尺 9分 (29.59cm)
	升	—	—	—	—	—	—	1.00	447	
	斗	—	—	—	—	—	—	10.00	4474	
	斛	—	—	—	—	—	—	75.00	3,3555	
	石	—	—	—	—	—	—	150.00	6,7110	
末醬 斛量	合	—	—	—	—	—	—	0.10	93	唐大尺 1尺 3寸 9分
	升	—	—	—	—	—	—	1.00	928	
	斗	—	—	—	—	—	—	10.00	9278	
	斛	—	—	—	—	—	—	75.00	6,9586	
	石	—	—	—	—	—	—	150.00	13,9172	
稗租 斛量	合	—	—	—	—	—	—	0.10	105	唐大尺 1尺 4寸 5分
	升	—	—	—	—	—	—	1.00	1053	
	斗	—	—	—	—	—	—	10.00	1,0532	
	斛	—	—	—	—	—	—	75.00	7,8992	
	石	—	—	—	—	—	—	150.00	15,7984	
量體制		單 一 量 制					4종의 齊價量制			

자세히 보인다.¹⁴⁾ 이 네 종류 곡미들의 용적에 대한 實寸數가 기록되었다고 하나, 그 量器尺이 어떠한 척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것은 고구려

척이 아닌 길이가 29.592cm의 唐大尺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 문종의 3등전척

고려 문종은 성종 11년(992)에 제정된 3등급 조세법이 복잡하므로 이를 혁파하고, 옛 조세법처럼 전토의 면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율을 단일화한 同科收租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종 7년에는 「齊價量制」로 양제를 개혁하고 23년에는 면적을 3등급으로 나누는 改量田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실시된 양전법은 길이 비율이 장정의 농부 손가락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즉 上田尺 : 中田尺 : 下田尺의 비율이 각각 20指 : 25指 : 30指가 되도록 세 종류의 양전척을 만들었던 것이다.¹⁵⁾ 이러한 양전척을 중국에서와 같이 6척 길이를 각 등전의 1步로, 사방 3보 3척의 넓이를 각 등전의 1負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하등전 1결의 면적은 하등전척을 기준으로 하여, 下田 1결 = 下田尺 $\{(3步 - 3尺) \times (10)\}^2 = 下田尺(210尺)^2 = 10指尺(630尺)^2$ 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하등전 1결에 대한 양전은 이와 같이 시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결의 사방 길이는 33보라는 기록은 있지만 1부의 넓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¹⁶⁾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전토 넓이와 달랐으므로 후일 조선 태종 5년(1405)에 “1부의 넓이를 사방 33보의 10분의 1인 3보 3분으로 하지 않고 3보 3척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하고, 1부를 3보 3분인 3보 1척 8촌이 되게 전국의 田積을 고쳤다. 이에 1결이, $1結差 = (210尺)^2 - (198尺)^2 = \{(4,4100) - (3,9204)\}尺^2 = 4896尺^2 = 12負 4束$ 으로서, 12부 4속씩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12.4%의 增稅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종 10년의 改量田은 1부를 3보 3척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의 100배가 되는 1결을 사방 35보로 고친 것이었다.¹⁷⁾ 즉 下田 1結 = 下田尺(35步)² = 下田尺(210尺)² = 周尺(210×2.8尺)² = 周尺(1,3829)步 = 세종조 畝法 57畝 149步였다. 그러나 10指를 指尺 1尺으로 보았을 때, 1把는 사방 63指인 지척

14) 《世宗實錄》권 104, 세종 26년 6월 갑신.

15) 《世宗實錄》권 49, 세종 12년 8월 10일.

16) 《高麗史》권 78, 食貨 1, 田制 문종 23년.

17) 《世宗實錄》권 42, 세종 10년 10월 3일.

〈표 3〉

한국의 고대畧田法과 畧田尺表

	상고~고려 초 때 양전법	문종 23년 이후의 양전법		태종 5년 개량전법	세종 10년의 개량전법
		기 록	실 제		
畧田制 基準尺	壯農夫 10指 (19.42cm)		壯農夫 10指 (19.42cm)	10指	10指 (19.42cm)
畧 下	—	30指	30指=3尺	指尺 3尺	指尺 3尺
田 中	—	25指	25指=2尺 5寸	指尺 2尺 5寸	指尺 2尺 5寸
尺 上	—	20指	20指=2尺	指尺 2尺	指尺 2尺
1把長	64指	6尺	6尺		
1把	方 64指 = (1.24m) ² = 1.51m ²				
1負	方 640指 = (12.4m) ² = 154.5m ²		方 3步 3.33尺 = 154.5m ²	方 3步 1尺 8寸 = 133.1m ²	方 3步 3尺 = 149.7m ²
1結	方 640指 = 1,5447m ²	方 33步	方 35.55步 = 1,5447m ²	方 33步 = 1,3307m ²	方 35步 = 1,4968m ²
下田 1結	1,5447m ²		1,5447m ²	1,3307m ²	1,4968m ²
中田 1結			1,0727m ²	9241m ²	1,0394m ²
上田 1結			6865m ²	5914m ²	6652m ²
租 稅 率 (1結)	租 30斗		水田糙米 30斗 旱田黃豆 30斗	水田糙米 30斗 旱田黃豆 30斗	水田糙米 30斗 旱田黃豆 30斗

사방 6척 3촌이 아니라 6척 4촌(4進法數)이 된다. 이것을 하전척으로 표시했을 때 본래의 1결은, $\text{指尺}(640\text{尺})^2 = \text{下田}\left(\frac{640}{3 \times 6}\text{尺}\right)^2 = \text{下田尺}(35.55\text{步})^2$ 으로서 사방 35보 5.555분이 되고, 또 1부는 3보 3.333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종이 개량전했을 때 1부를 3보 3척으로 하고 그 이하의 치수는 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문종이 동과수조법을 위해서 개량전하였을 때, 1결 면적의 기준이 되었을 옛 1결을 하등전 1결로 정하고, 중등전과 상등전의 면적은 옛 1결을 각각 1결 44부와 2결 25부로 한 계산을 통하여 개량전이 실시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땅을 측량하여 면적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오직 下等田尺만으로써 실측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하등전척 1척은 대

략 세종 때의 周尺 2척 8촌으로 환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朴興秀〉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신라 문무왕 21년에 개혁된 도량형제도는 고려로 전승되었고, 다시 조선에 전해졌다. 또한 量制의 표준량은 옛부터 전해온 標準量器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종 때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므로 고려 문종 때 개혁된 齊價量制는 세종 때의 양제가 되었으며, 무게의 표준도 고려 때부터 전해 온 工曹의 저울추를 표준으로 삼았으나, 척도만은 정확한 표준척이 없어 그 길이가 매우 문란하였으므로 새로운 표준척을 제정 통일하게 되었다.

1) 척도의 통일

조선이 건국된지도 30여 년이 경과되어 나라 안팎이 안정되게 되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확히 확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세종은 태종 때에 吉禮序禮와 각종 의식을 제정하였던 許稠에게 洪武舊制와 東國儀禮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五禮를 상세하게 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허주는 5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표준으로서 造禮器尺을 만들게 되었다. 이 무렵 朴堧은 예악을 정돈하기 위해서 음악의 기본음과 정확한 12音律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海州産의 秬黎를 바탕으로 한 累黍法으로 黃鐘尺을 만들었다.

한편 고려에서부터 시작된 同科收租法을 중국식의 頃畝法으로 고쳐 貢法을 실시하자는 여론으로 인하여, 경무법의 양전척이 되고 있었던 정확한 周尺의 표준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에 표준이 될 척도를 제정하도록 명하여 가례의 주척을 새로이 고쳐 標準周尺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때 제정된 것으로는 새로운 표준척으로서의 營造尺과 縱黍尺, 橫黍尺 등이었는데, 이 3종의 척도는 명나라에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척

도들은 세종 12년(1430)에 제정되었으나, 관청과 민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布帛尺의 표준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조에서는 재가를 얻어 전국의 관부로 하여금 그 지방의 표준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백척을 대나무로 만들어 京市署로 보내게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포백척을 제정하여 각 관부에 분급함으로써 포백척도 통일하였던 것이다.¹⁾

周尺은 주공이 새로이 경무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옛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10지폭의 지척을 量田用으로 제정하였던 주나라의 관척으로서, 그 정확한 길이는 19.496cm였다. 그러나 新의 王莽 때 劉歆은, 중국음악과 도량형이 舜 임금의 「同律度量衡」체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근거로 하여, 중국의 표준척은 주척이 아니라 중국음악의 기본임인 黃鐘音을 내는 黃鐘律管長임을 밝혔다. 그 이후로 모든 樂理學者들은 劉歆 銅斛尺만을 표준척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척은 실질적으로 양전과 里程用尺으로 사용되면서도 기록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周禮》의 기준척이었던 주척은 가례와 더불어 私尺으로 전해 내려와 우리나라에서도 禮制의 기준척이 되었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즉 건국 초에는 가례에 있는 司馬公(光)의 石刻周尺을 바탕으로 했으나 그것이 오래되어 오차가 심하므로 洪武癸酉年(1393)에 허조가 陳友諒의 아들 陳理家에게서 얻은 주척, 원나라 중추원사 金剛이 얻은 象牙周尺, 가례에 있는 사마공의 석각주척 등을 자료로 하여 집현전에서 가장 정확한 주척을 만들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표 1〉

諸尺關係表

(단위 : 尺)

기 본 척 관 계 척	黃鐘尺	周 尺	營造尺	造禮器尺	縱黍尺	橫黍尺	布帛尺
周 尺	0.6	1.000	0.663	0.73	0.7	0.789	—
營 造 尺	0.899	1.499	1.000	1.09	1.15	1.18	—
造 禮 器 尺	0.825	1.38	0.92強	1.000	1.7	—	—
布 帛 尺	—	2.246	—	—	—	—	—
一 等 量 田 尺	—	4.775	—	—	—	—	2.126

1) 朴興秀, 〈李朝尺度에 關한 研究〉(《大東文化研究》4, 1967).

2) 《增補文獻備考》권 85, 禮考.

이 때 제정되었던 각종 표준척의 길이 사이에는 <표 1>에서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백척과 세종 26년에 제정된 一等量田尺의 길이를 합하여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면 <표 2>에서와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 때의 표준척으로 나머지 척도들의 길이도 정확히 밝힐 수 있게 되었다. 《磻溪隨錄》에는 임진왜란과 관리들의 관리 소홀로 모든 척도들은 없어졌지만 三陟府의 포백척과 水標橋의 水位周尺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³⁾ 그러나 이것마저 없어져 순조가 부러진 世宗水標에서 世宗周尺을 실측함으로써 밝힌 釐正周尺記와 현재 전하는 수표교의 인조 甲戌量田周尺長, 南大門樓와 圓覺寺十層石塔에서 얻은 世宗營造尺 등에서 세종 때의 표준척 길이가 <표 3>과 같음을 밝힐 수 있다. <표 2>에서 밝

<표 2> 세종조 諸尺度 관계의 換算値 일람표

(단위 : 尺)

기 본 척 관 계 척	黃鐘尺	周 尺	營造尺	布帛尺	造禮器尺	橫黍尺
黃 鐘 尺	1.00000	1.66864	1.11148	0.74299	1.21239	1.31499
周 尺	0.59929	1.00000	0.66610	0.44527	0.72657	0.78806
營 造 尺	0.89970	1.50128	1.00000	0.66847	1.09078	1.18310
布 帛 尺	1.34591	2.24584	1.49595	1.00000	1.63176	1.76986
造 禮 器 尺	0.82482	1.37633	0.91677	0.61283	1.00000	1.08463
橫 黍 尺	0.76046	1.26893	0.84524	0.56502	0.92197	1.00000

<표 3> 세종 尺度의 길이 일람표

尺 種	세종 척도의 표준길이		경국대전	
	黃鐘尺의 단위	cm 단위	黃鐘尺의 단위	cm 단위
黃 鐘 尺	1.00000	34.700	1.00000	34.700
周 尺	0.59929	20.795	0.606	21.028
營 造 尺	0.89970	31.220	0.899	31.195
造 禮 器 尺	0.82482	28.621	0.823	28.558
布 帛 尺	1.34591	46.703	1.348	46.776
橫 黍 尺	0.76046	26.388		
一 等 量 田 尺	2.86156	99.296		
甲 戌 量 田 周 尺	0.62746	21.773		

3) 柳馨遠, 《磻溪隨錄》 권 2, 附錄 3, 陟布帛尺圖.

했듯이 척도 사이의 길이 관계를 《經國大典》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오로지 周尺만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국대전》에서 周尺長을 黃鐘尺의 6寸 6釐라 함으로써 세종 척도를 밝히려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는데, 《六典條例》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정정하고 있다.⁴⁾

2) 양전법의 개량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 10년에는 1결의 넓이를 고려 때 三等田의 넓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사방 35보로 改量田하였다. 그러나 同科收租法이 중국의 貢法만 못하다 하여 세종 18년에 공법을 입법하여 다음해부터 경상·전라·경기에서 頃畝法으로 개량전을 시행하였다. 이 때의 양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였다.

1步 길이=周尺 5尺

1步 면적=方周尺 5尺=周尺 25尺²

1畝=240步=周尺 6000尺²

1頃=100畝=周尺 60,000尺²

위와 같은 단일면적으로써 田品을 6등분, 年分을 9등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시해 본 결과 조세를 위한 종류가 54종이나 되어 매우 복잡한 데다 부패한 관리들의 행패가 심하여 국고에 들어오는 租穀의 양이 줄게 되었다. 이에 세종 26년에는 다시 옛 제도인 동과수조법으로 환원시키도록 개량전을 실시하였다. 이 때의 양전법은 전품을 6등급으로, 연분을 9등분한 것이었다.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눈 방법은 당시 하등전 1결의 넓이가 57무 149보였으므로, 이것을 57무로 계산하여 여기서 上上年에 上上田이면 벼 80석(糙米 40석)이, 下下田이면 벼 20석이 수확된다고 보고, 이 사이를 벼 12석의 수확고의 차이가 있는 田을 한 등급씩 낮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각 等

4) 朴興秀, 〈李朝尺度 標準에 관한 考察〉(《素巖李東植先生華甲記念論文集—道와 人間科學—》, 1981).

《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0월 18일 및 권 93, 세종 23년 8월 20일.

田 1결의 넓이에 있어서는 1結租를 20두로 정하면 1등전 1결의 넓이는 종래의 하등전 1결의 2/3인 38무가 되고, 6등전 1결은 228무의 2/3인 152무가 되어 가장 알맞은 1결의 넓이가 된다고 보고, 수확고의 1/20인 20斗租의 동과 수조법이 되게 정했던 것이다. 이는 1등전 1결 57무에서 조미 30두의 조세를 내게 하면 1/20조가 되므로, 1결조를 糙米 30두로 정했을 때 1등전의 넓이는 57무가 되지만, 6등전 1결의 넓이는 228무나 되어야 하므로 면적단위로서의 1결의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1결의 넓이를 정하여 각 등전 1결의 넓이를 세종 周尺과 경무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ext{等田 } 1\text{結} &= 38\text{畝} = \text{周尺}(38 \times 6000)\text{尺}^2 = \text{周尺}(22,8000\text{尺})^2 = \text{周尺}(100 \times 4.775\text{尺})^2 \\
 &= 9859.5\text{m}^2 \approx 1\text{ha} \\
 2\text{等田 } 1\text{結} &= 44\text{畝 } 7\text{分} = \text{周尺}(44.7 \times 6000)\text{尺}^2 = \text{周尺}(26,8200)\text{尺}^2 \\
 &= \text{周尺}(100 \times 5.179\text{尺})^2 \\
 3\text{等田 } 1\text{結} &= 54\text{畝 } 2\text{分} = \text{周尺}(54.2 \times 6000)\text{尺}^2 = \text{周尺}(32,5200)\text{尺}^2 \\
 &= \text{周尺}(100 \times 5.703\text{尺})^2 \\
 4\text{等田 } 1\text{結} &= 69\text{畝} = \text{周尺}(69 \times 6000)\text{尺}^2 = \text{周尺}(41,4000)\text{尺}^2 = \text{周尺}(100 \times 6.434\text{尺})^2 \\
 5\text{等田 } 1\text{結} &= 95\text{畝} = \text{周尺}(95 \times 6000)\text{尺}^2 = \text{周尺}(57,0000)\text{尺}^2 = \text{周尺}(100 \times 7.550\text{尺})^2 \\
 6\text{等田 } 1\text{結} &= 152\text{畝} = \text{周尺}(152 \times 6000)\text{尺}^2 = \text{周尺}(91,2000)\text{尺}^2 = \text{周尺}(100 \times 9.550\text{尺})^2
 \end{aligned}$$

이를 다시 주척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ext{等 量田尺 } 1\text{尺} &= \text{周尺 } 4.775\text{尺} \\
 2\text{等 量田尺 } 1\text{尺} &= \text{周尺 } 5.179\text{尺} \\
 3\text{等 量田尺 } 1\text{尺} &= \text{周尺 } 5.703\text{尺} \\
 4\text{等 量田尺 } 1\text{尺} &= \text{周尺 } 6.434\text{尺} \\
 5\text{等 量田尺 } 1\text{尺} &= \text{周尺 } 7.550\text{尺} \\
 6\text{等 量田尺 } 1\text{尺} &= \text{周尺 } 9.550\text{尺}
 \end{aligned}$$

또 이와 같은 길이의 양전척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ext{把} &= \text{方 } 1\text{尺} \\
 1\text{束} &= 10\text{把} \\
 1\text{負} &= 10\text{束} = \text{方 } 10\text{尺} \\
 1\text{結} &= 100\text{負} = \text{方 } 100\text{尺}
 \end{aligned}$$

〈표 4〉 세종조 頃畝 및 結負束把 일람표

세종 19년 頃畝法		세종 26년 이후 結負束把法		인조 12년 이후 結負束把法	
경	수 치	경	수 치	경	수 치
量田尺	周尺=20.795cm	量田尺	周尺 =20.795cm	量田尺	甲戌周尺 21.772cm
1步	周尺 5尺	1等 田尺	周尺 4.775尺 =0.99290m	1等 田尺	周尺 4.775尺 =1.0396m
1步積	方周尺 5尺 =周尺 25尺 ²	2等 田尺	周尺 5.179尺 =1.0776m	6等 田尺	周尺 9.550尺 =2.0792m
1畝	周尺 240步 =周尺 6000尺 ² =259.46m ²	3等 田尺	周尺 5.703 =1.189m	1把	方 1尺
1頃	100畝 = 周尺 60,000尺 ² =2,5946m ²	4等 田尺	周尺 6.434尺 =1.33795m	1負	100把
		5等 田尺	周尺 7.550尺 =1.57002m	1結	100負
		6等 田尺	周尺=9.550 =1.98592m	1等田 1結	1,0807.7m ² =41畝 157步
		1把	方 1尺	2等田 1結	1,2714m ²
		1負	100把	3等田 1結	1,5417m ²
		1結	100負	4等 1結	1,9623m ²
		1等田 1結	38畝 =9859.7m ² =2982.5坪	5等田 1結	2,7020m ²
		6等田 1結	152畝 =3,9439m ² =1,1930坪	6等田 1結	4,3232m ² =1頃 66畝 149步

따라서 1등전 1把는 2등전의 0.85파, 3등전의 0.7파, 4등전의 0.55파, 5등전의 0.4파, 6등전의 0.25파나 된다. 그러므로 실제의 양전에 있어서는 1등 양전척 하나만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로 측량된 넓이는 각 등전에 따라 환산되었는데 그 환산표가 바로 田制詳定所에서 만든 「田制詳定遵守冊」이다.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고려 문종 때 제정된 齊價量制度는 세종 초기까지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그 네 종류의 量器尺은 모두 唐大尺이었다. 양기척은 중국에서도 점차로 길이가 길어져 옛 양기척과 같은 길이의 당대척은 없어졌으며, 그 伸長尺이 명나라 때에 營造尺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태조 때에 이미 명나라 영조척이 도입되어 官尺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세종 12년의 표준척에 영조척이 제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표준량을 계속 정확히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도 양기척을 세종 영조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크기를 다르게 한 量器가 4종씩이나 있었지만, 각 시대별로 곡물가가 다양하여 이 네 종류의 양기만으로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1升의 가격비율도 동일할 수 없었다. 더욱이 부정이 생길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세종 28년(1446)에는 양기의 체제를 바꾸어 米斛量器 하나만의 단일체제로 통일하고, 그 표준 양기척도 영조척으로 바꾸어 1두의 용적이 196입방촌이 되게 長方體形으로 개혁했던 것이다.⁵⁾ 옛 양기가 입방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방체형으로 고친 것은 옛 입방체 양기의 용적을 그대로 영조척 길이의 입방체로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세종 때에 양기의 표준을 영조척 196입방촌으로 결정한 것은, 고려의 표준 미국양기의 용적을 정확히 전수받 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⁶⁾ 따라서 세종 영조척 길이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나라 옛 표준량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세종 영조척 길이를 31.220cm로 보았을 때 세종 量制度는 <표 5>에서와 같이 되며, 통일신라 때 1승 즉 고려 문종 이후의 미국 1승은 597㎤가 되고,

5) 《世宗實錄》권 113, 세종 28년 9월 27일.

6) 高麗때 米斛量器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35.510cm로 보아야 했으므로, 길이가 31.220cm의 世宗 營造尺으로 측정한다면 $\frac{35.510}{31.220} = 1\text{尺} 1\text{寸} 3\text{分} 7\text{釐} 4\text{毫}$ 가 되므로 米斛의 容積을 營造尺으로 表示하면 1斛=7斗 5升=(11.374寸)³=1471.43寸³, 따라서 1斗= $\frac{1491.43}{7.5}$ 寸³=196.1907寸³≈196寸³이 되었기 때문에 寸單位量까지만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세종 때 斛斗升습의 용적

(영조척 길이 31.220cm)

단 위 量器名	量器記錄寸數			계산된 용적			비 고
	길이(寸)	넓이(寸)	깊이(寸)	寸 ³	cm ³	리터	
합	2.00	0.70	1.40	1.96	59.642	0.060	
升	4.90	2.00	2.00	19.6	596.424	0.596	
斗	7.00	7.00	4.00	196	5964.235	5.964	
小斛(平石)	20.00	10.00	14.70	2940	8,9463.53	89.464	15두
大斛(全石)	20.00	11.20	17.50	3920	11,9284.71	119.285	20두

세종 때 1승은 596.4cm³가 되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종 때에 통일된 정확한 표준량은 중앙에서 영조척 40개를 만들어 각 관부^{에7)} 지급함으로써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신라 문무왕 때 제정된 衡量制度는 고려를 거쳐 세종 때까지 전수되었다. 세종 3년에 공조에서는 보존하고 있던 저울을 기준으로 하여 다량의 저울을 새로 만들어 전국에 공급함으로써 衡量을 통일하였다.⁸⁾ 후일 朴堧에 의하여 雅樂의 기본음과 12음률을 제정하기 위해 黃鐘尺이 만들어졌다. 즉

〈표 6〉

세종대 衡量의 크기

단위명	항	중량(그램)	비고	단위명	항	중량(킬로그램)	비고
黃鐘律官容水 88分		35.307	黃鐘律官容積 35.320cm ³	小稱		0.642	1斤
1分		0.4012				1.926	3斤
1錢		4.0122		中稱		4.494	7斤
1兩		40.1218				19.258	30斤
1斤		641.946		大稱		64.195	100斤
1貫		4012.2					

7) 《世宗實錄》 권 114, 세종 28년 11월 4일.

8) 《世宗實錄》 권 13, 세종 3년 8월 18일 및 권 18, 세종 4년 12월 29일.

《律呂新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황종척으로 길이 9寸, 內徑 3分 4釐 6毫의 黃鐘律管을 만들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의 무게를 표준저울로 88분이 되게끔 실측하여 이로써 저울추를 만들어 형량의 표준으로 삼게 하였다.⁹⁾ 따라서 세종 때의 황종율관은 그 당시 음악의 기본음의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의 표준 原器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6〉은 위에서 살핀 세종대의 형량을 정리한 것이다.

〈朴興秀〉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세종 때 통일된 표준척들은 관리 소홀로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周尺은 성종 때 이미 그 길이가 신장되어 《經國大典》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오차가 생겼으며, 임진왜란을 겪는 사이에 三陟府의 布帛尺을 제외한 모든 표준척은 없어졌다. 인조 때 제작된 一等量田尺은 포백척으로 1촌씩 길어져 양전 면적도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척이 문란하게 되자 계량법에 있어서도 斗升量을 고봉으로 계량하게 되어, 영조 때 兪拓基는 삼척부의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여 세종 척도를 복원하려 하였으나 전국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순조 때에는 《경국대전》의 周尺長의 잘못을 고쳐 《六典條例》에 밝혔으나 표준척의 문란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척의 문란은 결국 광무 6년(1902)에 平式院에서 도량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정되었던 것이다.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광무 6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미터법을 도입하면서 표준척 1척을

9) 《經國大典》권 16, 工典 度量衡.

10/33m로 하고 이 척도를 原尺이라 하여 일본의 曲尺을 우리나라 표준척으로 제정하였다. 또 慣例를 살린다는 뜻에서 주척장을 곡척 6촌 6분이라 했는가 하면 포백척은 곡척 1척 7촌이라 하고, 관례의 결부속과법과 里程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¹⁾

1步=周尺 6尺
 1間=周尺 10尺 1鍵=10間
 1里=周尺 2100尺=350步=420m
 1息=30里
 1把(쭝)=方周尺 5尺=1平方m
 1束(단)=10把 1負(짐)=100把
 1結(먹)=100負=方 100m=1ha

그러나 일본 陸地測量部는 전국을 삼각측량하여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데 전래의 결부속과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본식 단위제도를 채택하였다.

1間=曲尺 6尺
 1坪(步)=方 曲尺 6尺 1畝=30坪(步)
 1段步=300坪 1町步=100畝

그 결과 표준척은 일본의 도량형제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2) 양제도의 개혁

광무 6년 도량형 개혁에서는 다음과 같이 量制度의 단위와 미터법의 단위를 정하였다.

① 양제도의 단위

1撮=10圭 1抄=10撮
 1勺=10抄 1合=10勺
 1升=10合 1斗=10升

1) 《增補文獻備考》권 91, 樂考 2, 度量衡.

1石=10斗

② 미터법의 단위량

1先知翊突(cm)=5抄 5撮 4圭

1翊突(m)=5斛 5勺 4抄 3撮 5圭

위와 같이 양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결국 1升=1803.90669cm³와 같은 표준량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 1승량은 일본이 明治 때 통일한 일본 도량형의 표준량을 취한 것이었다.

3) 형량의 개혁

미터법에서의 질량의 標準原器인 백금제 1kg의 400분의 15의 무게를 衡量의 표준으로 정하고 그것을 1량으로 하여 보조단위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絲=10忽

1毫=10絲

1釐=10毫

1分=10釐

1錢=10分

1兩=10錢=37.5g

1斤=16兩=600g

1貫=100兩

이 표준량도 역시 일본 도량형의 표준량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전래의 도량형제도를 완전히 말살시킨 것이었다.

〈朴興秀〉

찾아보기

【ㄱ】

- 가가상 假家商 126
 가내수공업 家内手工業 256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 274
 가룡(목) 加龍(木) 323, 332, 340
 가목 駕木 332, 340
 가정공물 加定貢物 429
 가흥창 可興倉 525~528, 532
 각사무원공별무 各司無元貢別貿 146
 각사 사주인 各司私主人 464, 465
 각사위전 各司位田 435
 각사유원공별무 各司有元貢別貿 146
 각사주인 各司主人 464
 《각선도본》 《各船圖本》 340, 356
 각염법 榷鹽法 217, 361, 362
 각읍채납제 各邑採納制 5, 247, 248, 250, 252
 각전각계별무 各廩各契別貿 146
 간경도감 刊經都監 240, 241, 298, 462
 간망군 看望軍 539
 간망인 看望人 539
 간봉 間烽 541
 간선도로 幹線道路 500, 501
 간전 墾田 116
 간종(법) 間種(法) 95, 104, 105, 117
 감고 監考 539, 540
 감목관 監牧官 10, 556, 557
 감무관 監務官 160
 감야관 監治官 231, 245, 247
 감직관 監織官 272
 갑방 甲坊 256
 갑선 甲船 347
 갑수 甲首 483
 갑인주안 甲寅柱案 64, 78
 갑조법 甲造法 347, 349, 352, 354
 갑조선 甲造船 347, 350, 352
 강감 江監 530
 강남농법 江南農法 2
 강무방물 講武方物 467, 468
 강민 사주인 江民私主人 465
 강상 江商 536
 강선 江船 337
 강시 姜蓍 98
 강창 江倉 463, 530
 강포 江布 260
 강희맹 姜希孟 100, 265
 강희안 姜希顔 100
 개간전 開墾田 45, 46
 개간정책 開墾政策 114
 개경환도 開京還都 495
 개삭 改墾 348, 349
 개성부 開城府 32
 개원통보 開元通寶 180
 개천도감 開川都監 211, 213
 개혁파사류 改革派士類 16, 23, 24, 27, 37, 62, 76
 객주 客主 122, 163, 170, 171
 개정공법 更定貢法 86
 개정전시과 更定田柴科 41
 거화법 舉火法 540
 건경법 乾耕法 2, 101, 103, 117
 건양법 乾秧法 103
 검교직 檢校職 41
 건종법 畝種法 104
 건직업 絹織業 253, 255, 257, 258, 266, 267, 275~277, 281
 결 結 603, 604

결부속파법 結負束把法 603, 604, 607, 624
 결부제 結負制 25, 78, 94, 95, 113, 448, 451, 453
 결전 結箭 406
 겸사복 兼司僕 552, 555
 겸사복청 兼司僕廳 555
 경 頃 604, 609
 경강상인 京江商人 536, 538
 경공장 京工匠 5, 6, 267, 295, 306
 경관록 京官祿 432
 《경국대전》 《經國大典》 113, 416, 419, 420, 552~554, 557, 623
 경무법(제) 頃畝法(制) 86, 451, 615, 618, 619
 경복궁 慶福宮 212
 경비사 經費司 424
 경비식례 經費式例 430
 경비식횡간 經費式橫看 470
 경상 京商 276
 경성무역소 鏡城貿易所 235
 경성수보도감 京城修補都監 211, 212
 경성수축도감 京城修築都監 211
 경시서 京市署 3, 122, 123, 141, 149, 425, 616
 경연 經筵 552
 경원무역소 慶源貿易所 235
 경원창 慶原倉 527
 경인세 經印稅 188
 경인제도 經印制度 189, 190
 경작권 耕作權 61
 경재소 京在所 321
 경저리 京邸吏 460
 경저사 京邸舍 464
 경종법 耕種法 2
 경주인 京主人 460
 경차관(제도) 敬差官(制度) 83, 87, 215
 경창 京倉 449, 525, 526, 530
 경쾌선 輕快船 536

계민수전의 원칙 計民授田의 原則 23
 계수관 界首官 214, 315
 계장 厠匠 255
 계전법 計田法 70, 477, 478
 계정·계전절충법 計丁·計田折衷法 8, 478
 계정법 計丁法 8, 70, 478
 계해약조 癸亥約條 202
 고구려척 高句麗尺 601, 602, 606, 608
 고려식 조선법 高麗式 造船法 349
 고물비우 330
 《고사촬요》 《攷事撮要》 592
 고삭망 藁索網 401
 고정주봉수대 古靜州烽燧臺 541
 고지기 庫直 530
 곡근전 穀根田 104
 곡척 曲尺 624
 《골정담옹일기》 《骨亭澹翁日記》 166
 공 貢 457
 공간 公干 374
 공개인 貢契人 163
 공국당상 公局堂上 160
 공납계 貢納契 146
 공납(제) 貢納(制) 91, 438, 460, 472
 공랑상인 公廊商人 126
 공랑상점 公廊商店 122
 공리 貢吏 321, 460, 463~465
 공무 公賈 141, 146, 148
 공무역 公賈易 290
 공물 貢物 7~9, 143, 284, 319, 321, 457~466, 468, 472, 509
 공물공안 貢物貢案 141
 공물수납관서 貢物收納官署 425
 공물의 분정 貢物의 分定 457
 공물진성 貢物陳省 463
 공법 貢法 7, 83~89, 442, 446~449, 451~453, 456, 615, 618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446
 공법전세제 貢法田稅制 83, 84, 88, 89, 91

- 공부 貢賦 67, 69, 70, 477
 공부상정도감 貢賦詳定都監 259, 317, 428
 공부의 포납화 貢賦의 布納化 465
 공사 公事 158
 공상 供上 437
 공상세 工商稅 431
 공선 空船 344
 공세곡창 貢稅串倉 525, 526, 528, 532
 공수전 公須田 438, 440, 441, 510, 511
 공신전 功臣田 13, 40, 49, 53, 58, 59, 442, 443
 공안 貢案 7, 9, 428~431, 465, 468~470
 공역 公役 481
 공역서 供驛署 504
 공염 貢鹽 367, 368, 371, 375
 공염간 貢鹽干 362, 459
 공용조작식례 供用造作式例 429, 430
 공원 公員 167
 공음전 功陰田 53
 공인 貢人 130
 공작 工作 306
 공장 工匠 212, 214, 459
 공장세 工匠稅 275
 공전 公田 1, 23, 28, 38, 53, 54, 58, 443, 444
 공전조 공수 公田租 公收 31
 공정고 供正庫 425, 427
 공제소 共濟所 167
 공조 工造 306
 공조 工曹 336, 426, 497
 공조서 供造署 427
 공주인 貢主人 129
 공지호 供紙戶 294
 공진회 共進會 167
 공채 公債 472
 공천 公賤 363
 공철감면 貢鐵減免 239, 251
 공철량 貢鐵量 217, 230
 공철수취제도 貢鐵收取制度 248
 공철의 대납제 貢鐵의 代納制 244
 공해전 公廩田 19, 442, 443, 446
 과록 科祿 432
 과법 課法 362, 363
 과염법 課鹽法 362, 363, 380
 과전 科田 39, 42, 443, 450
 과전법 科田法 1, 2, 7, 24, 25, 35~38, 40, 41, 43~46, 48~50, 52~54, 59~61, 63, 64, 66, 68, 77, 78, 81, 82, 441~448, 523
 과전법체제 科田法體制 13, 39, 75, 76
 과전절급액 科田折給額 40
 과체진상 瓜遞進上 467
 과하마 果下馬 590
 관 館 511
 관곡 대여제도 官穀貸與制度 32
 관공장 官工匠 267, 269
 관둔전 官屯田 438, 440, 441, 510
 관무역 官貿易 4, 196, 199, 200~202, 205
 《관문등서책》 《關文騰書冊》 159
 관비공물 官備貢物 6, 8, 320, 459, 465
 관비진상 官備進上 470
 관상감 觀象監 425, 426
 관선 官船 332, 336, 367, 372, 531
 관선조운(제) 官船漕運(制) 524, 530~532, 535, 536
 관선진 觀仙津 501
 관수관급제 官收官給制 1, 69
 관염 官鹽 362, 363, 367, 369, 374
 관염분 官鹽盆 366
 관영수공업 官營手工業 5, 6
 관영잠실 官營蠶室 264
 관영제지업 官營製紙業 296
 관영진선 官營津船 333
 관인구분전 官人口分田 20
 관장제 官匠制 5
 관장제수공업 官匠制手工業 258, 267, 268, 275, 277, 290

- 관저전 官楮田 6, 305, 320, 321
관전 館田 510
관척 官尺 621
광나루 廣津 501
광업 鑛業 283
광업세 鑛業稅 431
광통교 廣通橋 497
광흥(강)창 廣興(江)倉 33, 336, 424, 425, 435, 442, 443, 450, 530
광흥창위전 廣興倉位田 435
광희문 光熙門 497
교량 橋梁 407
교린외교 交隣外交 203
교린정책 交隣政策 199, 200
교서관 校書館 295, 306, 425, 426, 429
교통기관 交通機關 9
9등연분제 九等年分制 91
구리개 497
구분전 口分田 18~20, 39, 47, 218, 440
구비제조법 廐肥製造法 107
구선 龜船 349, 360
구임관 久任官 306
구임제 久任制 306
구황염 救荒鹽 369
구황청 救荒廳 432
국가수조지 國家收租地 23, 40
국가재정 國家財政 9, 36, 423, 428, 432, 435, 437, 438, 476, 523
국역 國役 7, 8, 480, 481
국용전 國用田 435
국용전제 國用田制 437
군국아문 軍國衙門 157, 167
군기감 軍器監 5, 213~217, 221, 224, 230, 233, 235, 236, 297
군기시 軍器寺 268, 425, 426
군기점고찰방 軍器點考察訪 215
군기타조공장 軍器打造工匠 215
군두 群頭 10, 556, 564~566
군부 群副 556, 564~566
군부사 軍簿司 32
군산창 群山倉 529
군선 軍船 336, 341, 346, 349, 354, 355
군선점검법 軍船點檢法 348
군수용 종이 軍需用紙 290
군역 軍役 34, 43, 91, 476, 480, 488
군역의 요역화 軍役의 徭役化 488
군역전 軍役田 443
군역제도 軍役制度 485
군역호 軍役戶 71
군인전 軍人田 3, 21, 53
군자감 軍資監 214, 369, 435
군자강감 軍資江監 530
군자곡 軍資穀 473, 474
군자시전 軍資寺田 39
군자위전 軍資位田 435
군자창 軍資倉 450
군적 軍籍 485, 486
군전 軍田 18, 21, 33, 34, 43~45, 48, 53
군중 軍中 140
궁궐수축도감 宮闕修築都監 212
궁궐조성도감 宮闕造成都監 212, 213
궁내부 宮內府 267
궁사전 宮司田 39, 443
권감 權臧 244
권근 權近 64
권맹손 權孟孫 365
권감정책 勸蠶政策 258, 261, 263~267, 276
권중지 權仲知 124
귀후서 歸厚署 251, 426, 429
균역법 均役法 369
균전론 均田論 75
균전제도 均田制度 27, 28
근 斤 608, 609
근경 根耕 117
근경법 根耕法 95, 104
금곡포창 金谷浦倉 525, 526, 532

- 금난전 禁亂塵 3, 126, 150, 151, 152
 금난전권 禁亂塵權 130
 금박장 金箔匠 268
 금살도감 禁殺都監 577
 《금양잡록》 《衿陽雜錄》 100, 101, 104, 108
 금장 錦匠 255
 금수소선 汲水小船 324
 급전사 給田司 424
 급전제 給田制 36
 급주전 急走田 438, 510
 기구 驥廐 554
 기발 騎撥 10, 547
 기북 冀北 571
 기사양전 己巳量田 25, 26, 33~35, 46, 53, 57, 66, 67, 78, 80, 454
 기선군 騎船軍 361
 기전 箕田 607
 기전유제설 箕田遺制說 601
 기전척 箕田尺 600, 601, 606, 608
 길드 Guild 133, 150
 길드클럽 Guild Club 134
 길드 홀 Guild Hall 133
 길례서례 吉禮序禮 615
 길쌈대회 績麻大會 255
 김덕령장군 출토복식 金德齡將軍 出土服飾 287
 김승경 金升卿 245, 246
 김시형 金時炯 273
 김안국 金安國 100, 266, 528
 김여지 金汝知 236
 김이소 金履素 128
 김일제 金一濟 307
 김재로 金在魯 152
 김종서 金宗瑞 233, 365
 김함 출토복식 金涵 出土服飾 287
 김홍철 金弘喆 408
 나장 羅匠 255
 나지 羅紙 315
 나진만 대초도 羅津灣 大草島 397
 낙천정잠실 樂天亭蠶室 263
 낙하도 洛河渡 501
 난전 亂塵 150~152
 《난호어목지》 《蘭湖漁牧志》 389
 남만 南蠻 203~206
 남발 南撥 548
 남시 南市 122
 남향반수 南向班首 159, 170
 납공문첩 納貢文帖 241
 납분(제) 納分(制) 241, 462
 내거간 內居間 171
 내립마 內立馬 594
 내부시 內府寺 427
 내불당 內佛堂 462
 내사복시 內司僕寺 552, 554
 내섬시 內贍寺 267, 269, 425~427
 내수사 內需司 425~427, 437, 537
 내수소 內需所 427
 내외물전 內外物廩 128, 129
 내외어물전 內外魚物廩 128
 내의원 內醫院 426, 436, 468
 내이포 乃而浦 202
 내자시 內資寺 267, 271, 425, 427, 468
 《노걸대》 《老乞大》 257
 노동생산성(력) 勞動生產性(力) 93, 96, 97, 103, 113, 117
 노들나루 露梁津 501, 502
 노사신 盧思愼 246, 247
 노승 盧嵩 523
 노야장 盧冶匠 231
 녹과 祿科 441
 녹과전 祿科田 19
 녹과전지 祿科田柴 18, 20
 녹봉(제) 祿俸(制) 255, 432, 435, 530
 《농가월령》 《農家月令》 101, 102, 110, 111, 150~158
 농본주의 農本主義 121, 149

《농사직설》 《農事直說》 2, 98~105,
107~109, 592
농상교서 農桑敎書 265, 266
《농상집요》 《農桑輯要》 98, 99, 102,
107, 110, 262, 278
농서 農書 98, 99, 106, 108, 117, 265
《농서집요》 《農書輯要》 100, 102,
104~110
농업생산기술 農業生産技術 117
농업생산력 農業生産力 92, 93, 98,
111, 115~117, 266, 449
농우정책 農牛政策 115
《농정신편》 《農政新篇》 307
농촌수공업 農村手工業 260, 267, 291
농학 農學 117
누대의 농사 農代의 農舍 69
누르재 497
누침법 果忝法 615
능급전 廩給田 39
능단장 綾段匠 269, 271, 272
능라장 綾羅匠 256, 267~272, 306
능장 綾匠 255
능침전 陵寢田 39, 442, 443

[ㄷ]

단 段 603, 604
단선 單船 349
단자직조색 段子織造色 270
단조법 單造法 347, 354
단조선 單造船 347, 348, 351
달단마 韃鞢馬 590
담험손실법 踏驗損實法 82, 83, 445,
447~449
담험위관 踏驗委官 83
당대척 唐大尺 606, 609, 613, 621
당전 唐錢 172
대납 代納 322, 460
대납제 代納制 240, 243, 251, 252
대동법 大同法 9, 129, 130, 322, 339,

465, 466
대동수미 大同收米 129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566
대로야 大爐冶 237
대립가 代立價 489, 490
대마도 對馬島 201, 303
대마도정벌 對馬島征伐 344
대맹선 大猛船 350, 352, 356
대방 大房 159, 161
대복시 大僕寺 551
대선 大船 324, 341~343, 345, 350,
351, 353~355
대시 大市 124
대역 代役 291, 533
대외무역 對外貿易 3, 4, 206, 207
대일무역 對日貿易 288, 289
대전 代田 70
《대전속록》 《大典續錄》 555
《대전통편》 《大典通編》 553, 563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563, 578
대청무역 對淸貿易 198
대칭 對稱 609
대토지소유 大土地所有 2
대패예은 大牌禮銀 135
대행수 大行首 139, 140
대화형선 大和型船 327
대후 大垵 499
덕성창 德成倉 525, 526, 528, 532
덕천고 德泉庫 427
덕흥창 德興倉 337, 525
도 渡 501
도가 都家 133, 134, 141
도가비량금 都家備量金 140
도가사례 都家事例 133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黜陟使 24, 37, 67
도량형 度量衡 10, 599
도련포 都連浦 571
도령위 都令位 139, 140
도반수 都班首 159, 160
도성수축도감 都城修築都監 211, 212

도성조축도감 都城造築都監 211, 212
 도순문사 都巡問使 215, 218
 도안색 都案色 553
 도염서 都染署 255, 427
 도원 都員 133, 135, 137, 140
 도자전 刀子塵 132
 도절제사 都節制使 214, 215, 218, 539
 도접장 都接長 157, 159, 160
 도중 都中 133~135, 137~139
 도청 都廳 462
 도침장 擣砧匠 268, 269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215, 218, 552
 도화서 圖書署 426
 도회 都會 223
 도회관 都會官 231
 도회색 都會色 231
 도회소 都會所 321, 471
 돌산봉수대 突山烽燧臺 541
 동과수조법 同科收租法 611, 613,
 615, 618, 619
 《동국의례》《東國儀禮》 615
 동률도량형 同律度量衡 616
 동위척 東魏尺 601
 《동의보감》《東醫寶鑑》 389
 동이악 東夷樂 600
 동자갑선 冬字甲船 346
 동자개나루 銅雀津 501
 동장도회 銅場都會 224, 229
 동장도회제 銅場都會制 224
 동장제 銅場制 224
 동적이세 同積異稅 77, 452
 동전 銅錢 4, 173, 175~177, 182~
 187, 191~194
 동화원 桐華院 512
 득성창 得城倉 525, 529
 등과전 登科田 28

[ㄹ]

량 兩 608, 609

리 里 609

[마]

《마경》《馬經》 592
 마랑이도 馬郎耳島 571
 마산창 馬山倉 524
 마위전 馬位田 19, 510, 511
 《마의서》《馬醫書》 592
 마의전 馬醫田 592
 마적 馬籍 572
 마전 馬田 438
 마정 馬政 10, 549
 마직업 麻織業 253, 255, 257, 259,
 260, 281, 284
 마패 馬牌 9, 509
 《만기요람》《萬機要覽》 128
 만상객주 灣商客主 170, 171
 만호 萬戶 333
 말장곡 末醬斛 611
 망어법 網漁業 400, 409
 매음도 煤音島 571
 맥근전 麥根田 105
 맥분진법 麥糞田法 107
 맹선 孟船 341, 344, 345
 맹선 猛船 339, 344, 342, 352~356,
 358, 359
 맥 結 603, 604
 면업 綿業 259, 260, 281~285, 289,
 291
 면조권 免租權 34, 44
 면조지 免租地 23, 45
 면주전 綿紬塵 128, 129, 143, 147
 면포 綿布 279, 287, 290~292
 면포교역 綿布交易 288, 289
 면포기술 綿布技術 292
 면포전 綿布塵 128, 129, 131
 면포전 綿布田 283
 면흑예은 面黑禮銀 135
 명목화폐 名目貨幣 183, 189, 191, 192

명일방물 名日方物 467, 470
 명전 明錢 173
 모곡 耗穀 474~476
 모미 耗米 46, 474, 476
 모법 耗法 475
 목감 牧監 558
 목먹산봉수대 木覓山烽燧臺 541
 목면 木棉 279, 282
 목면교역 木綿交易 288
 목수적 木手籍 213
 목자 牧子 10, 556, 557, 561, 563
 목자위전 牧子位田 561
 목장 牧場 510, 571
 《목장지도》 《牧場地圖》 565, 567
 무 畝 603, 604, 609
 무경제 畝頃制 604
 무군선 無軍船 341, 342, 344, 354
 무명 木綿 287
 무분각전 無分各廩 127, 141
 무비사 武備司 539, 553
 무선사 武選司 553
 무역소 貿易所 4, 200
 무제염전 無堤鹽田 376, 377
 무제염전식 無堤鹽田式 6
 문익점 文益漸 6, 259, 278, 280~282, 286
 물선진상 物膳進上 466, 468, 469
 물품화폐 物品貨幣 182~185, 189, 190, 192, 194
 미륵원 彌勒院 513
 민간수공업 民間手工業 5, 256~259, 267, 275, 277, 290, 291
 민간야철수공업 民間冶鐵手工業 234
 민간조선업 民間造船業 332
 민비공물 民備貢物 459
 민비진상 民備進上 470
 민영광산 民營鑛山 229
 민영수공업 民營手工業 5, 6
 민유지 民有地 50, 54
 민전 民田 1, 2

밀달조 密達租 102

[부]

박비증 朴非曾 312
 박연 朴堧 622
 박원형 朴元亨 312
 박이창 朴以昌 365
 《박택편》 《泊宅編》 278
 박흥생 朴興生 100
 박희손 朴喜孫 247
 《반계수록》 《磻溪隨錄》 114, 566, 617
 반대동 半大同 465
 반수 班首 159, 167, 170
 반정 半丁 22
 발외 把犁 109
 발장 撥將 547
 발전자 發電楮 573
 방군수포 放軍收布 441, 442, 491
 방납 防納 8, 322, 460, 464, 472
 방납수 防納叟 461
 방림 防簾 407
 방물 方物 141, 143, 144, 149, 470
 방물진상 方物進上 467
 방사랑 房士良 282
 방선 防船 360
 《방약합편》 《方藥合編》 388
 방전 防箭 406
 방직업 紡織業 5, 253, 258, 260
 방직장 紡織匠 256, 267, 269
 방패 防牌 482
 방화전 房火錢 512
 배고개 497
 배다리 浮橋 503
 백달원(토산) 白達元(兎山) 156, 158, 166
 백만기씨 소장 문서 및 물품 白萬基氏 所藏 文書 및 物品 155
 백목전 白木廩 128
 백정대전 白丁代田 19, 21

- 백제척 百濟尺 606
- 백첩포 白氎布 279~281
- 백추지 白硯紙 294
- 번경 反耕 104, 106, 111
- 번고 反庫 530
- 번염법 燔鹽法 367
- 범노선 帆槽船 355
- 법성포 法聖浦 526
- 법성(포)창 法聖(浦)倉 529, 532
- 벽란도 碧瀾渡 501, 502
- 벽진 이씨 출토복식 碧珍李氏 出土服飾 287
- 별공 別貢 8, 320, 429, 430, 458
- 별례진상 別例進上 469
- 별마 別馬 582, 586
- 별무 別賁 141, 146~149
- 별무도절전 別賁都折錢 147
- 별사 別賜 255
- 별사방물 別使方物 143, 145
- 별선 別船 341, 342, 344
- 별선 別膳 467
- 별임령위 別任領位 139
- 별진선 別進膳 467
- 병마도절제사 兵馬都節制使 214
- 병마절도사 兵馬節度使 222, 539
- 병선 兵船 341~343, 345
- 병작농 並作農 76
- 병작반수 영농 並作半收營農 68
- 병작반수제 並作半收制 75, 76
- 병조 兵曹 497, 554
- 병조선 兵漕船 6, 335, 350~356
- 병풍진 屏風塵 132
- 보 步 603, 604, 609
- 보무법 步畝法 603
- 보발 步撥 10, 547
- 보발군 步撥軍 547
- 보법 保法 8, 484, 485, 488, 489
- 보부상 祿負商 122, 153, 154, 156, 163, 170
- 보부상객주 祿負商客主 170, 171
- 보상 祿商 154, 155, 157, 158, 162, 164, 167
- 보상단 祿商團 167
- 보상단의 운영 祿商團의 運營 162
- 보상회 祿商會 160
- 보수원 寶樹院 512
- 보인 保人 246, 483, 485, 488~490, 508
- 보인제 保人制 248
- 보조 寶鈔 173
- 보포 保布 8
- 복색상정조건 服色詳定條件 286
- 복흥고 福興庫 427
- 본방 本房 159
- 봇짐장사 154
- 봉군 烽軍 539
- 봉상시 奉常寺 425~427
- 봉수 烽燧 10
- 봉수군 烽燧軍 540
- 봉수망 烽燧網 541
- 봉수제(도) 烽燧制(度) 79, 538, 540, 547
- 봉입 捧入 147, 148
- 봉족 奉足 71, 483, 485, 487
- 봉족제 奉足制 8, 533
- 봉족호 奉足戶 483
- 봉졸 烽卒 539
- 봉화간 烽火干 539
- 봉화군 烽火軍 539
- 부 夫 603, 604
- 부 負 604
- 부반수 副班首 159
- 부산포 富山浦 202
- 부상 負商 154, 155, 157, 162, 164, 166~168, 170
- 부상단 중앙임원 負商團 中央任員 169
- 부상청 負商廳 166
- 부세 賦稅 431
- 부세법 賦稅法 78
- 부용창 芙蓉倉 337, 529

부임 副任 159
 부장전 副長田 438
 북발 北撥 548
 북포 北布 260
 분 分 608, 609
 분급수조지 分給收租地 40, 50, 51,
 53, 54, 59~61, 443
 분등수세법 分等收稅法 235, 251
 분수저법 糞收貯法 107
 분전법 糞田法 107
 분전제도 分田制度 17
 분종법 糞種法 3, 106
 분지제 分地制 55
 불수조특권 不輸租特權 62
 불암창 佛巖倉 524, 525
 불용동전자 규찰조건 不用銅錢者 糾察
 條件 181
 비변사 備邊司 336
 비우 鼻羽·飛荷·比牙·非雨 330,
 331
 빙고 氷庫 426

[人]

사간 私干 374
 사간원 司諫院 552
 사고 四庫 33
 사고 私庫 464
 사금장 絲金匠 268, 274
 사농시 司農寺 427
 사늘도 四訥島 571
 사대교린관계 事大交隣關係 196
 사대교린외교 事大交隣外交 196,
 205~207
 사대교린정책 事大交隣政策 195
 사대동 私大同 465
 사대외교 事大外交→사대교린외교 事
 大交隣外交
 사도시 司僕寺 424~427
 사무역 私貿易 196~202, 205, 206,

290, 299
 사민정책 徙民政策 114
 사복시 司僕寺 10, 425~427, 551~
 554
 사사전 寺社田 19, 443
 사선 私船 367, 372, 524, 536, 537
 사선서 司膳署 427
 사설항로 私設航路 535, 538
 사섬서 司膳署 177~180, 425, 426
 사섬시 司膳寺 298, 306
 사소 絲所 256
 사속 使屬 159
 사수감 司水監 334, 335, 425, 531
 사수색 司水色 334~336, 531
 《사시찬요》 《四時纂要》 99
 《사시찬요초》 《四時纂要抄》 160, 265
 사염 私鹽 364, 369, 374, 375, 379
 사염간 私鹽干 362
 사염분 私鹽盆 366
 사염세 私鹽稅 362
 사염업 私鹽業 375
 사염의 관영화 私鹽의 官營化 368
 사염인 私鹽人 375
 사온서 司醢署 425~429
 사옹방 司饔房 427
 사옹원 司饔院 398, 426, 427, 459, 468
 사원전 寺院田 39, 53
 사자황 獅子黃 573
 사장고 私藏庫 427, 437
 사장제 私匠制 5
 사재감 司宰監 7, 334, 362, 368, 369,
 410, 415, 417, 424~427, 459, 531
 사전 私田 1, 20, 22~26, 29, 30, 33,
 38, 44, 45, 53~56, 443, 444
 사전개혁 私田改革 13, 16~18, 24,
 26, 30, 33~35, 54, 64
 사전개혁론 私田改革論 70
 사전개혁론자 私田改革論者 15
 사전개혁안 私田改革案 18, 19, 23
 사전경기의 원칙 私田京畿의 原則

- 36, 37, 46
 사전복구론자 私田復舊論者 32
 사전제도 私田制度 28
 사전조 私田租 27
 사전조 공수 私田租 公收 31, 32, 62
 사전조 반수 私田租 半收 27
 사전혁과 私田革罷 31, 32, 36, 62, 66
 사주인 私主人 464
 사직금지 私織禁止 277
 사진선 私津船 333
 사창 社倉 436
 사창 私倉 473, 474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사철광산 沙鐵鑛山 232, 233
 사철취련역 沙鐵吹鍊役 221, 222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사치금령 奢侈禁令 259
 사평도 沙平渡 501
 사평부 司平府 423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사헌부 司憲府 19, 463
 삭료월봉 朔料月俸 306
 삭망진상 朔望進上 466
 산관록 散官祿 432
 《산림경제》 《山林經濟》 307
 산전 山田 87, 453
 살파법 撒播法 104
 삼개나루 麻浦津 501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삼례역 參禮驛 508
 삼밭나루 三田渡 501, 502
 삼사 三司 423
 3승모법 3升耗法 475
 삼척부 三陟府 623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상경전 常耕田 95
 상고계 시행사목 商賈楔 施行事目 161
 상공 常貢 8, 320, 429, 458
 상등전 上等田 611
 상리국 商理局 157, 167
 상리국절목 商理局節目 169
 상림원 上林園 301, 427
 상목배양절목 桑木培養節目 265
 상무사 우사 商務社右社 153, 156, 158, 160, 163, 164, 167
 상무사장정 商務社章程 154
 상무사 좌사 商務社左社 167
 상민회 商民會 167
 상방 尙方 273
 상방사 尙方司 267
 상서사 尙瑞司 219
 상서원 尙瑞院 9
 상아주척 象牙周尺 616
 상의국 尙衣局 255, 267
 상의사 尙衣司 267
 상의원 尙衣院 267~275, 306, 425~427
 상임 上任 160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상임자 上任者 162
 상전척 上田尺 61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상평보 常平寶 436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189, 193, 194
 생선간 生鮮干 459
 생철 生鐵 233
 서강나루 西江津 501
 서모 鼠耗 476
 서밭 西撥 548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서시 西市 122
 서유구 徐有槩 307
 석두창 石頭倉 337, 525
 석방렴 石防簾 409

석철광산 石鐵鑛山 232, 233
선 船 341
선가 船價 372, 450
선공감 繕工監 5, 212, 214, 217, 221, 224, 230, 233, 235, 426, 427
선군 船軍 351, 363, 374, 420
선망 旋網 409
선미재 船尾材 331
선부서 船府署 334
선상노 選上奴 306
선상업 船商業 536
선상활동 船商活動 538
선세 船稅 431
선수재 船首材 330
선잠제 先蠶祭 261, 262
선전 線(縵)塵 131
선제 船制 360
선제개혁 船制改革 347, 350
선혜청 宣惠廳 143, 336, 339
섬 石 607, 608
성문도감 城門都監 212
성석린 成石璘 524
《성소복부고》 《惺所覆頤藁》 388
성장 箴匠 268, 269
세 稅 443
세건선 歲遣船 202, 204
세곡운송 稅穀運送 536
세곡운송정책 稅穀運送政策 524
세곡의 조운 稅穀의 漕運 528
세납의 화폐화 稅納의 貨幣化 184
세사미 歲賜米 202
세업전 世業田 14
세역화전 歲易火田 456
세위전 稅位田 440
세종수표 世宗水標 617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455, 565, 566
세종영조척 世宗營造尺 617, 621
세종주척 世宗周尺 617
세폐 歲幣 141, 142, 149

세폐색 歲幣色 142
소격서 昭格署 3, 425, 426
소경공부 所耕貢賦 477
소경요역 所耕徭役 477
소경전 所耕田 38, 67, 70
소경전세 所耕田稅 477
소금전매제 鹽專賣制 363, 365, 371, 379
소농민경영 小農民經營 61, 69, 73, 83, 91
소농민의 자경지 자영형 小農民的 自耕地 自營型 76
소농민의 차지 병작형 小農民的 借地 並作型 76
소로야 小爐冶 237
소맹선 小猛船 6, 350, 352~355
소목군 燒木軍 459
소양강창 昭陽江倉 525, 526, 532
소칭 小稱 609
소패예은 小牌禮銀 135
소후 小垵 499
《속대전》 《續大典》 555, 563
속전 續田 87, 447, 448
손실답험법 損實踏驗法 7, 442, 443
솔인 率人 508
솔정 率丁 483
송전 宋錢 172
송질 宋軼 272
수 銖 608
수경가 輸京價 449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222, 539
수납대가 輸納代價 450
수등이척제 隨等異尺制 66, 78, 80, 89, 113, 452
수등이척주척 隨等異尺周尺 7, 447, 451
수등이척지척 隨等異尺指尺 7, 447, 451
수량 水梁 396, 407, 408, 417
수량선주 水梁船主 417

- 수령 守令 539
수립주척 水立周尺 617
수산업 水産業 7, 382
수산자업 水産資業 392
수상 水商 176
수성전선색 修城典船色 334, 335
수손급손(제) 隨損給損(制) 182, 444
수쇄법 手灑法 6
수신전 守信田 46, 47, 51
수영 水營 336
수운 水運 10, 523, 530
수장 繡匠 255
수전 水田 87, 115, 457
수전농법 水田農法 101~103, 106, 117
수전농업 水田農業 2, 112, 116
수전종맥법 水田種麥法 95
수조권 收租權 34, 36, 37, 45, 50, 52, 54, 60~62, 65, 66, 82, 444
수조권자 收租權者 51
수조권적 토지 지배 收租權的 土地支配 28, 40, 43, 50, 59, 60
수조율 收租率 58, 79, 451
수조제 收租制 77, 78, 80, 83, 91
수조지 收租地 23, 30, 36, 48, 49, 53, 58
수조지 분급제도 收租地分給制度 49
수참 水站 523
수참판관 水站判官 530
수철 水鐵 233
수철장 水鐵場 225
수철장 水鐵匠 236, 237, 240, 251, 252
수태지 제조법 水苔紙製造法 311
수표교 水標橋 497, 617
숙철 熟鐵 233
〈순진〉 〈舜典〉 600
순제악 舜帝樂 600
순제척 舜帝尺 600
순찰사 巡察使 539
숭례문 崇禮門 497
승여사 乘輿司 504, 553
승정원 承政院 552
시비법 施肥法 2, 106~108, 117
시역 市役 129
시진 市塵 3, 58, 122~124, 266
시전 市典 122
시전행랑도감 市塵行廊都監 213
시패 市牌 152
시행수 時行首 140
식년마 式年馬 582
식염절가제 食鹽折價制 371
신개 申槩 363~365
신공제 申公濟 537
신도궁궐 新都宮闕 495
신도궁궐조성도감 新都宮闕造成都監 211, 212
신득재 申得財 312, 313
신량역친 身良役賤 561
신묘대전 辛卯大典 251
신미도 身彌島 571
신백정 新白丁 577
신분제적 토지 지배관계 身分制的 土地支配關係 54
신숙주 申叔舟 335, 351, 354, 476
신역 身役 8, 441, 476, 477, 480, 481, 488
신장척 伸長尺 621
《신편집성마의방》 《新編集成馬醫方》 100
신표 信標 160, 162
신혜원 新惠院 512
실감반수 實監班首 159, 170
실임 實任 139
심정 沈貞 537
심회 沈澮 246, 247
1/10수조율 十分之一收租率 7, 79
1/10조(율) 什一租(率) 58, 88
10좌 十座 140
10지척 十指尺 606

[ㅇ]

- 아동 兒童 137, 138
아록전 衙祿田 438, 440, 441
안기역 安寄驛 508
《안기집》 《安驥集》 592
안동포 安東布 260
안렴사 按廉使 24, 64, 361
안목 安牧 63
안순 安純 85, 420
안심동당 安心東堂 290
안원 安瑗 63
안철손 安哲孫 532
안흥창 安興倉 337
애마자장관제령 愛馬孳長官提領 558
액정국 掖庭局 255
야철수공업 冶鐵手工業 211, 216, 236, 240
약재진상 藥材進上 468, 469
약전 藥廩 132
양마소 養馬所 554
양맥근전 兩麥根田 105
양성지 梁誠之 284, 476
양어 養魚 410
양잠 養蠶 261, 263, 264
《양잠경험집요》 《養蠶經驗輯要》 262
양잠방 養蠶方 99, 262
양전 量田 77~90, 113, 451, 454
양전제(법) 量田制(法) 79~81, 83, 91, 447
양전척 量田尺 86, 451, 455
양현고 養賢庫 424~426, 468
양화나루 楊花渡 501, 502
《양화소록》 《養花小錄》 100
어구 漁具 402
어구어법 漁具漁法 400
어량 漁(魚)梁 396, 402~407, 417
어량선세 魚梁船稅 415
어량어업 魚梁漁業 402, 409, 420
어량전주 魚梁箭主 417
어세 漁稅 432
어수량 漁水梁 396
어염세 漁鹽稅 431
어장(제도) 漁場(制度) 417, 431
어전(어업) 漁箭(漁業) 384, 407, 408, 417, 419, 420
〈어초기〉 〈漁樵記〉 257
언전 堰田 457
《언해잡서》 《諺解蠶書》 264, 266
여각 旅閣 122, 170, 171
여둔봉수대 餘屯烽燧臺 541
《여지도서》 《輿地圖書》 565
역 驛 476, 480, 510, 512, 547
역로행정 驛路行政 503
역리 驛吏 508, 510
역마 驛馬 509
역승 驛丞 504, 508
《역어유해》 《譯語類解》 388
《역어유해보》 《譯語類解補》 408
역원 驛院 511
역장 驛長 508
역전 驛田 503, 510, 511
역정 驛丁 508
역제 驛制 503, 511
역졸 驛卒 508, 511
역축 力畜 108
역호 驛戶 504
연례방물 年例方物 143, 144
연분 9등법 年分九等法 447, 448
연분제 年分制 86
연안어장 沿岸漁場 413
연작법 連作法 499
연작상경농법 連作常耕農法 79
연호미법 煙戶米法 473
역환마 易換馬 583
역환마가 易換馬價 588
염가 鹽價 364, 367
염간 鹽干 367, 372, 374, 379, 380

- 염군 鹽軍 364
- 염법 鹽法 364~367, 371
- 염부 鹽夫 374
- 염분 鹽盆 362, 374, 375
- 염산지 鹽產地 373, 374
- 염세 鹽稅 363, 375, 432
- 염소 鹽所 364, 374
- 염업 鹽業 283, 380
- 염업정책 鹽業政策 363, 374, 380
- 염업제도 鹽業制度 361, 365, 368, 369, 371, 379
- 염역 鹽役 372, 374, 375
- 염장 鹽場 367
- 염장 染匠 270, 272
- 염(장)관 鹽(場)官 361, 369, 375
- 염적 鹽籍 375
- 염전 鹽田 376, 377
- 염전식 제염법 鹽田式製鹽法 376, 378
- 염정 鹽井 376~378
- 염정 鹽丁 374
- 염제 鹽制 371
- 염창 鹽倉 362, 369, 372
- 염철법 斂鐵法 216, 220, 221, 245, 248
- 염포 鹽浦 202
- 염한 鹽漢 364, 374
- 염한호 鹽漢戶 363
- 염호 鹽戶 374, 380
- 영덕 철장도회 盈德鐵場都會 229
- 영산성 榮山城 525, 526
- 영산창 榮山倉 529, 532
- 영조척 營造尺 606, 615, 621
- 예빈시 禮賓寺 425~427
- 5가 五價 450
- 5강진로 五江津路 501
- 5거법 五炬法 540
- 5고7궁 五庫七宮 427
- 5도 도반수 五道都班首 166
- 5등호제 五等戶制 458
- 오리정 五里亭 499
- 오승 吳陞 222
- 오장 伍長 539, 540
-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388
- 와서 瓦署 42, 429
- 온도선 莞島船 324, 329
- 왕강 王康 523
- 왕망척 王莽尺 605
- 왕실 공재정 王室 公財政 437, 438
- 왕실 사재정 王室 私財政 437
- 왕실재정 王室財政 423, 428, 437, 438
- 왕토사상 王土思想 59
- 왜관 倭館 202
- 왜별선 倭別船 344, 345
- 외거간 外居間 171
- 외고 外庫 464
- 외립마 外立馬 594
- 외역전 外役田 443
- 요역 徭役 67, 69, 441, 476~480
- 요원 僚員 160
- 요중 僚中 161, 162, 169
- 용구 龍廐 554
- 용등자 龍騰紫 573
- 용산성 龍山城 525
- 《용재총화》 《慵齋叢話》 264
- 《우경》 《牛經》 592
- 우사 右社 → 상무사 우사 商務社右社
- 우암봉수대 牛巖烽燧臺 541
- 우희열 禹希烈 410
- 운곡선 運穀船 340
- 운구 雲廐 554
- 원 院 511~513
- 원공 元貢 141, 146
- 원관 院館 523
- 원정공물 元定貢物 429
- 원주전 院主田 438, 512
- 월과군기(법) 月課軍器(法) 214
- 월과장인 月課匠人 240
- 월과제 月課制 218, 219, 221, 223,

- 233
 월령 月令 215, 222, 223, 237, 468, 469
 월선 月膳 466
 위봉족 緯奉足 268
 유구 琉球 203~206
 유벽반전려 有僻反轉型 109, 110
 유분각전 有分各廩 126, 128, 130,
 141, 143, 144, 146, 151
 유비창 有備倉 415
 유사눌 柳思訥 179
 유엽전 柳葉錢 191
 유제염전 有堤鹽田 377
 유척기 俞拓基 623
 유후사 留後司 181
 유흥동곡척 劉歆銅斛尺 616
 육염 陸鹽 372
 육운론 陸運論 527
 육의전 六矣廩 121, 122, 126, 129~
 132, 134, 137, 139, 141, 144, 147~152,
 155
 육장전 六長廩 130
 《육전조례》 《六典條例》 618, 623
 육조 六曹 552
 육주부전 六主夫廩 130
 육주비전 六注比廩 130
 육지측량부 陸地測量部 624
 윤목 尹睦 126
 윤소훈 尹昭訓 417
 윤작법 輪作法 449
 윤필상 尹弼商 247
 윤호 尹壕 246, 247
 윤효손 尹孝孫 246~248
 《율려신서》 《律呂新書》 623
 은병 銀瓶 172, 173
 은화 銀貨 175, 186
 을유양전 乙酉量田 454
 응방진상 鷹坊進上 469
 응봉봉수대 應峰烽燧臺 541
 응상백 凝霜白 573
 응인 鷹人 471
 의염(법) 義鹽(法) 362, 365, 367, 371,
 380
 의염색 義鹽色 365~368, 370, 371,
 380
 의영고 義盈庫 426, 427
 의창 義倉 365, 366, 368, 436, 472, 474
 이계전 李季甸 367, 370, 378, 379
 이군색 二軍色 553
 이궁조성도감 離宮造成都監 211, 212
 이권재상론 利權在上論 175
 이극배 李克培 247
 이덕량 李德良 245
 이덕형 李德馨 547
 이마 理馬 593
 2모작 二毛作 80
 이물비우 330, 331
 이민도 李敏道 177
 이보법 里步法 609
 이사흠 李士欽 262
 이색 李穡 64
 이선제 李先齊 368, 378
 이수광 李睟光 279
 이암 李岳 98
 이양법 移秧法 101, 103, 108, 117
 이우 李偶 100
 이이 李珥 476
 이적 李迹 262
 이적동세 異積同稅 78, 80
 이정주척기 釐正周尺記 617
 이태원 梨泰院 512
 인구 麟廐 554
 인납 引納 429, 430
 인록 人祿 483
 인리위전 人吏位田 440
 인문장 引紋匠 268, 270, 272
 인신척 人身尺 605, 608
 일과제 日課制 233
 일본산 닥나무 倭楮 303, 304
 일수 日守 508
 일시 日市 122

일차물膳 日次物膳 467
 1할모법 一割耗法 475, 476
 임선론 賃船論 527
 임선제 賃船制 537
 임업세 林業稅 431
 임정 林整 531
 임진나루 臨津渡 501, 502
 《임홍청금록》 《林鴻靑衿錄》 168, 169
 입역장인 入役匠人 275
 입전 立廛 133, 134, 147
 입전도중 立廛都中 138
 〈입전조례〉 〈立廛條例〉 141

[ㅈ]

자정제 字丁制 22
 작무법 作畝法 105, 117
 작서모 雀鼠耗 474
 작정 作丁 19, 21, 22
 잔잔호 殘殘戶 73, 74
 잠무역 潛貿易 176, 198, 202, 205, 206
 《잠서》 《蠶書》 261
 잠실도회 蠶室都會 5, 261~267
 잡역 雜役 459, 477
 잡직서 雜織署 255
 잡직체아록 雜織遞兒祿 432
 장세 匠稅 5, 235, 237, 251
 장시 場市 3, 124, 259, 266, 276
 장악원 掌樂院 426
 장원서 掌苑署 425, 426, 468
 장전 長田 458, 510
 장흥고 長興庫 337, 426, 427
 재금장 裁匠 268, 274
 재상전 災傷田 87, 90, 447, 448
 재역전 방식 再易田方式 95
 저산 8읍 苧産八邑 153, 155, 158, 159, 162, 164, 167
 《저죽전사실》 《楮竹田事實》 302
 저포전 苧布廛 128, 129, 143, 147
 저향 楮鄉 309

저화 楮貨 4, 173~177, 182~187, 291~294, 298, 304, 369, 370, 460
 전객 佃客 57, 59~61, 67, 450
 전결제 田結制 7, 447, 450
 전교서 典校署 298
 전구서 典廐署 427
 전농시 典農寺 410, 425, 468
 전리사 典理司 32
 전민계정사 田民計定使 78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正都監 16
 전분등제 田分等第 453
 전분 6등(법) 田分六等(法) 86, 452
 전사시 典祀寺 468, 469
 전선색 典船色 351
 전설사 典設司 426
 전세 箭稅 407, 457, 459, 477
 전세제도 田稅制度 77, 84, 453
 전송 田訟 64, 65
 전시과 田柴科 21, 36, 46, 53, 58, 77, 78, 445
 전오제염 煎熬製鹽 376, 378
 전의감 典醫監 425, 426, 429, 436, 468
 전정연립 田丁連立 21, 48, 53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85, 620
 전제상정준수책 田制詳定遵守冊 620
 전통선누선 全通船樓船 357
 전폐 箭幣 4, 173, 190, 191
 전폐제 錢幣制 177
 전품분등법 田品分等法 77, 81, 86, 416, 449, 452
 전함도감 戰艦都監 334
 전함사 典艦司 6, 334~336, 424, 425, 531
 절전 折錢 149
 점 店 512
 점퇴 點退 8, 9
 접장 接長 158, 159, 162, 167, 169
 정도전 鄭道傳 23, 24, 361, 524
 정몽주 鄭夢周 523

- 정액세법 定額稅法 87
 정역 定役 476, 477, 480
 정역호 定役戶 459, 470
 정음청 正音廳 298
 정전 正田 87, 447, 448
 정전법 井田法 603
 정천익 鄭天益 281
 정철장 正鐵匠 234
 정치망어장 定置網漁場 408, 414, 416
 제가량(체)제 齊價量(體)制 611, 615, 621
 제도순방계정사 諸道巡訪計定使 78
 《제민요술》 《濟民要術》 107
 제생원 濟生院 468
 제용감 濟用監 181, 229, 267, 269, 424, 426, 427, 512
 제용고 濟用庫 427
 제지법 製紙法 309, 311~313
 제지업 製紙業 6, 294~296, 309
 조례기척 造禮器尺 615
 조류양식 藻類養殖 410
 조방직 시비법 粗放的 施肥法 3
 조색포창 助色浦倉 525, 526, 532
 조선 造船 335~337, 531, 535, 536
 조선 漕船 333, 339, 340, 349, 350, 531, 532, 536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361
 조선통보 朝鮮通寶 4, 108, 188
 조선통폐 朝鮮通幣 188
 조성도감 造成都監 495
 조세 租稅 7, 57
 조어 釣漁 7
 조어업 釣漁業 408, 409
 조업전 助業田 13, 14, 19, 21, 22, 25, 27, 28, 44, 65
 조역가 祖役價 489
 조운 漕運 10, 333, 337~339, 354, 464, 523, 524, 531, 533, 534
 조운선 漕運船 324, 336~340, 349
 조인옥 趙仁沃 14, 17, 26
 조선 漕轉 523, 533
 조선선군 漕轉船軍 533
 조선성 漕轉城 523~525
 조준 趙浚 13, 14, 17, 18, 26, 29, 30, 32, 34, 57
 조지서 造紙署 6, 295, 297, 301, 305, 306, 308, 309, 311, 315, 320, 426
 조지서 趙之瑞 248
 조지소 造紙所 298, 304, 305, 308, 312, 320
 조창 漕倉 10, 324, 339, 449, 524, 525, 527~530, 534
 조현명 趙顯命 152
 족종법 足種法 104, 109
 종묘전 宗廟田 27, 28
 종부사 宗簿司 32
 종조척 縱造尺 615
 좌고상인 坐賈商人 126
 좌사 左社 → 상무사 좌사 商務社左社
 좌중 座中 139
 좌창 左倉 33
 좌창전 左倉田 39
 주낙어업 延繩漁業 408
 주목망 柱木網 400, 401
 주목망어업 柱木網漁業 384
 주소 紬所 256
 주자소 鑄字所 298, 305, 306
 주전소 鑄錢所 180
 주척 周尺 10, 86, 603, 606, 609, 616, 618, 619, 623
 주척장 周尺長 624
 주철장 鑄鐵匠 236, 237, 240, 251
 주화제 鑄貨制 177
 죽방렴 竹防簾 407
 준납첩 准納帖 321, 461, 463, 464
 줌 把 603, 604
 중대선 中大船 341~345, 350, 353~355
 중등전 中等田 611
 중로야 中爐冶 237

중맹선 中猛船 341, 342, 344, 345,
350, 352~355
중사 中祀 261
중선 中船 341~345, 350, 351, 353~
355
중선망 中船網 400
중선망어선 中船網漁船 400
중전척 中田尺 613
중칭 中稱 609
중형경쾌선 中型輕快船 324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13, 566
지록 地祿 440
《지봉유설》 《芝峯類說》 279
지소 紙所 294
지위전 紙位田 294
지인망어업 地引網漁業 382, 401, 414
지장 紙匠 6, 269, 295, 306, 317
지장위전 紙匠位田 306
지장진 紙匠田 306
지전 紙田 294, 510
지전 紙塵 128, 129, 131
지주제 地主制 91
지척 指尺 80, 86, 452
지척제 指尺制 113
직봉 直烽 541
직역 職役 8
직역인 職役人 35
직역전 職役田 13, 21, 22, 33, 34, 39
직장 織匠 268
직전 職田 39, 69
직전법 職田法 1
직조사 織造司 270
직조장 織造匠 272
직파법 直播法 103
직파연작법 直播連作法 2
진 津 501
진강장 鎭江場 571
진고개 497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47, 55

진대법 賑貸法 472
진리 津吏 502
진리가 陳理家 616
진부 津夫 502
진부전 津夫田 438
진상 進上 9, 398, 438, 466, 469, 472
진상마 進上馬 586
진선 進膳 466
진성 陳省 321, 461
진성창 鎭城倉 337, 525
진속군 鎭陳屬軍 219
진언상 陳彦祥 204
진전 陳田 87, 90
진제장 賑濟場 512
진척위전 津尺位田 502
진헌관마색 進獻官馬色 582, 583
진황전 陳荒田 87
짐 負 603, 604
집경장 執經匠 270, 272
집사 執事 167
집약농법 集約農法 106, 113
집위장 執緯匠 270, 272

[天]

차비노 差備奴 306
차사필 差士弼 90
차율수조 差率收租 451
착세 着稅 179, 188
찰방 察訪 504, 508, 510
찰방체제 察訪體制 504
참 站 547
참선 站船 335, 337, 339
참운 站運(水運) 523, 527
창고전 倉庫田 442, 443
창의문 彰義門 497
채륜 蔡倫 294
채제공 蔡濟恭 128, 151
천맥전법 阡陌田法 603
천신 薦新 468~470

침장고 沈藏庫 425, 427
칭 稱 608, 609
칭량금은화 秤量金銀貨 172
칭량은화 秤量銀貨 173, 182, 203

[ㄱ]

쾌선 快船 342, 343, 345, 350, 353
클링커 이음(clinker joint) 방식 323

[ㄴ]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565
《탐영사례》 《耽營事例》 565
태묘조성도감 太廟造成都監 211
태평원 太平院 512
토관 土官 440
토마 土馬 582
토지국유의 원칙 土地國有의 原則
38
토지국유(제) 土地國有(制) 1, 23
토지분급규정 土地分給規程 36
토지사유제 土地私有制 1
토지소유권 土地所有權 445
토지절급 土地折給 32
토지지배관계 土地支配關係 19, 20
통양창 通陽倉 337, 524, 525
통직 通織 270

[ㄷ]

과 把 603, 604
과발제 擺撥制 10, 547, 548, 577
판도사 版圖司 19, 64, 66
판옥선 板屋船 6, 356, 358~360, 367
판적사 版籍司 424
팔방통화 八方通貨 191
팔의전 八矣廩 128
패조곡 稗租斛 611
평선 平船 343, 356, 358~360

평시서 平市署 127, 129, 149, 150, 425
평식원 平式院 623
평저선 平底船 323, 328, 337, 347, 531
포백세 布帛稅 179, 188
포백척 布帛尺 10, 616, 617, 623
포전 布廩 128, 129, 131, 134
포전전안 布廩廩案 134
포화 布貨 4, 178, 179, 181, 182, 185,
188~190
표준척 標準尺 600
풍선색 豊船色 531
풍저창 豊儲倉 214, 336, 425, 442,
443, 450

[ㅎ]

하등전 下等田 611
하륜 河崙 177, 417, 524, 527
하양창 河陽倉 337
하원나루 河源渡 501
하전척 下田尺 613
하차 下差 158
한강나루 漢江渡 501, 502
한강의 진도 漢江의 津渡 502
한량관 閑良官 43~45, 48
한명회 韓明澮 246, 247, 419
한산도공원 閑散都公員 159
한선 韓船 6, 322, 323, 327, 337, 338,
346~349, 352
한선구조 韓船構造 323, 327~329,
338, 347
한선구조법 韓船構造法 324, 327, 352
한성부 漢城府 157, 214, 497, 552
〈한성부완문〉 〈漢城府完文〉 157, 168
한양 漢陽 125, 522, 524, 536
〈한양가〉 〈漢陽歌〉 131
한양의 가로망 漢陽의 街路網 495,
496
한언 韓堰 246
한인전 閑人田 46

- 한전 旱田 87, 116
 한전농법 旱田農法 103, 106, 117
 한전농업 旱田農業 2, 112
 합사장 合絲匠 268
 해동통보 海東通寶 172
 해룡창 海龍倉 337
 해릉창 海陵倉 337, 525
 해망인 海望人 539
 해세 海稅 432
 해수직자법 海水直煮法 6, 376, 380
 해운 海運 10, 523, 527, 528, 530
 해운판관 海運判官 530
 해작군 海作軍 471
 행당세 行廊稅 3
 행당시전 行廊市廛 124
 행랑조성도감 行廊造成都監 211, 235
 행상 行商 122, 126
 행행방물 行幸方物 467
 향공 鄉貢 441
 향리 鄉吏 440, 446, 457, 463, 464, 481
 향시 鄉試 121, 122, 153
 《향약집성방》 《鄉藥集成方》 389
 향역 鄉役 481
 향직원 鄉職院 273
 허응 許應 27, 30
 허조 許稠 615
 협호 挾戶 73, 76
 혜민국 惠民局 468
 혜민서 惠民署 425, 426, 429, 436, 468
 혜상공국 惠商公局 157, 167
 혜상공국관등서책 惠商公局官等書冊 169
 혜상공국서 惠商公局序 165, 166
 호구안 戶口案 485
 호마 胡馬 590
 호수 戶首 71, 483, 487, 488
 호역 戶役 476, 477, 488
 호적법 戶籍法 486
 호패법 戶牌法 501
 홍무구제 洪武舊制 615
 홍염장 紅染匠 268, 269
 홍제원 弘濟院 512
 화경법 火耕法 105
 화선 和船 327, 333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16
 화회체아수직 和會遞兒授職 306
 환상 還上 472
 활인서 活人署 436
 황국협회 皇國協會 167
 황원전 荒遠田 45, 46
 황종률관 黃鐘律管 623
 황종률관장 黃鐘律管長 616
 황종법 黃鐘法 615
 황종음 黃鐘音 616
 황종척 黃鐘尺 10, 618, 622
 회계사 會計司 424
 회환농법 回換農法 102, 103, 117
 횡간 橫看 7, 9, 430, 437, 469
 횡침척 橫忝尺 615
 후릿그물 揮羅網 401
 후릿그물어법 揮羅網漁法 382
 휴한법 休閒法 2, 7, 79, 105
 홀양전 恤養田 46, 47
 흥덕왕 복식금제 興德王 服飾禁制 254
 흥원창 興原倉 337, 525, 526, 532
 흥인문 興仁門 497
 흥천사 興天寺 554

집필자

개요 李載稟

I. 토지제도와 농업

1. 토지제도 金泰永

2. 농업과 농업기술 李鎬澈

II. 상 업

1. 도시상업 劉元東

2. 지방상업 劉元東

3. 화폐의 유통 元裕漢

4. 무역 元裕漢

III.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柳承宙

2. 방직업 趙孝淑

3. 제지업 河宗睦

4. 조선업 金在瑾

5. 염업 申芝鉉

6. 수산업 朴九秉

IV. 국가재정

1. 재정관계관서	李載堧
2. 중앙재정	李載堧
3. 지방재정	李載堧
4. 조 세	李載堧
5. 공 물	李載堧
6. 진 상	李載堧
7. 환 곡	李載堧
8. 역	李載堧

V. 교통 · 운수 · 통신

1. 도로의 정비	崔完基
2. 역 · 원제의 정비	崔完基
3. 수상교통과 조운	崔完基
4. 통신수단의 관리	崔完基
5. 마 정	南都泳

VI. 도량형제도

1. 옛 도량형제도	朴興秀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朴興秀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朴興秀

한 국 사

24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1994년 12월 24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4년 12월 30일 발행 (No. 94-14-7-7)

발행 국사편찬위원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쇄 탐구당문화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
